



환웅시대 태양시조 사상의 홍익인간과 재세이화 전통

Sun Founder Idea of Hwanungs Age and The Tradition of Belief in the Heavenly Gods of Government and Education of the World

저자 임재해
(Authors) Lim, Jae-Hae

출처 [단군학연구 \(29\)](#), 2013.12, 489-542(54 pages)
(Source) [Journal of Dangun Studies \(29\)](#), 2013.12, 489-542(54 pages)

발행처 [단군학회](#)
(Publisher) Dangun Studies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 E02361054>

APA Style 임재해 (2013). 환웅시대 태양시조 사상의 홍익인간과 재세이화 전통 . 단군학연구(29), 489-542

이용정보 삼성현역사문화관
(Accessed) 183.106.106.***
2021/09/12 11:0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 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환웅시대 태양시조 사상의 흥익인간과 재세이화 전통

임재해*

- | | |
|----------------------------|----------------------------|
| 1. 한국사 시대구분 논리와 상고사 증발 | 5. 태양숭배의 천신신앙 문화와 흥익 인간 이념 |
| 2. 환웅시대의 설정과 신시고국의 재인식 | 6. 건국신화의 지속과 변화를 읽는 통찰력 |
| 3. 환웅천왕의 존재 위상으로 본 하늘인식 | 7. 제천의식의 천제권과 책봉체제의 재인식 |
| 4. '신시고국' 시조 환웅천왕과 태양시조 사상 | |

1. 한국사 시대구분 논리와 상고사 증발

‘환웅시대’라고 하면 시대 명칭으로서 상당히 낯설다. 사학계에서 이러한 시대 용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환웅시대는 생경할 수밖에 없다. 사학계에서 환웅시대를 설정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시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시대를 인식하지 못한 까닭이다. 일정한 사관을

* 안동대학교

갖추어서 사료를 읽고 귀납적으로 해석한 결과에 따라 시대를 인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일본 또는 서구학계에서 쓰는 시대구분 용어와 개념을 고스란히 가져다가 민족사에 덮어씌우는 까닭에 환웅 시대는 포착되기 어려울 따름이다.

자국사의 시대구분을 자국사 중심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식민사학의 폐단이다. 주체적인 시대구분 없이 주체적인 자국사 서술은 불가능하다. 자국사조차 타율적 시대구분에 따르는 가장 대표적인 부기가 ‘개화기’의 설정이다. 개화기라는 말은 이전 시기를 미개시대로 간주하는 식민사학의 시대구분론이다. 그러므로 개화기라 하지 않고 개항기라 일컫는 것이 마땅하다.

고대사 연구의 여러 문제 가운데 가장 문제는 한국사 서술의 출발점이 시대구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아예 고조선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 시대구분에서조차 고조선은 제외되어 있었다. 국민적 비판과 항의가 거세지자, 2009년에 비로소 고조선실이 새로 꾸려졌다. 시대구분에서도 환웅의 신시나 단군의 조선은 물론, 해모수의 부여도 증발된 채 삼국시대부터 비로소 국가명이 명기되어 있다. 결국 삼국시대 이전 시기의 역사에서는 국가사가 묵살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 까닭에 우리 민족사는 여전히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 또는 고대, 중세, 근대 등 상투적인 시대구분론에 삼국시대 이후의 국가명을 짜맞추어 넣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사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주체적으로 분석하고 독자적 시대구분론을 펼치는 일을 자제하고, 사학자 스스로 자기 사관을 독자적으로 수립하는 모험적인 시도를 삼가는 것이 사학계에서 탈 없이 살아남는 길이자, 국사학자들 사이의 묵시적 미덕으로 인정되고 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의 역사에는 서기전 3000~5000년에 이미 일

정한 초기국가가 형성되었는데, 한민족만 서기 전후 100년 사이에 초기국가가 형성되었다는 어처구니없는 역사 서술을 하고 있다.

강단학자들이 학문적 계보를 배타적으로 분리하여 일컫는 ‘재야사 학자’들은 ‘단군시대’를 일컫듯이 ‘환웅시대’는 물론 ‘환인시대’까지 역사적 시기로 구분하여 일컫는다. 그러나 강단사학계에서는 그러한 시대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환웅시대를 석기시대 또는 청동기시대로 일컫거나 ‘고조선시대’ 속에 수렴하여 일컫는다. 다만 윤내현만이 강단사학자로서 보기 드물게 『고조선 연구』에서 환인시대와 환웅시대를 설정하고 있다.¹⁾ 그러나 환웅이 세운 신시를 초기국가로 보지 않는 까닭에 신시시대는 설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학계에서는 왜 ‘환웅천왕’에 관한 사료가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는데도 ‘환웅시대’라는 시대 설정을 공식적인 학술용어로 쓰지 않을까. 그러한 이유를 들어 보면 크게 네 가지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소한 이유부터 들면, 하나는 환웅처럼 인물 중심의 시대구분을 잘 하지 않는 까닭이며, 둘은 환웅시대의 역사적 공간을 민족사 속에서 설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은 서구학계에서 쓰는 시대구분 용어를 수입해서 쓰는 상투성에서 해방되지 못한 까닭이며, 넷은 민족사에 대한 주체적 연구와 시대구분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계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시대구분의 새로운 논리를 세워야 실제 역사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시대 설정이 가능하고, 일그러진 상고시대의 역사를 반듯하게 서술하고 해석의 깊이를 확보할 수 있다.

이 논의는 단군조선 이전 시기의 역사와 문화를 추적하는 일련의 작업 가운데 하나이다. 환웅시대는 고조선시대를 이루는 출발점이자 바탕이며 단군조선의 국가 체제와 문화적 정체성을 포착하는 중요한

1) 윤내현, 『고조선 연구』, 一志社, 1994, 140~141쪽.

실마리 구실을 한다. 그렇다고 하여 환웅시대를 고조선시대의 통시적 기점(起點)과 공시적 지점(地點)을 밝히는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민족사의 기점에서 마련된 환웅시대의 태양시조 사상과 홍익인간 통치이념에서 비롯된 문화적 정체성이 그 이후 수천년 동안 지속되어 신라시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과, 국중대회의 제천의식으로 발전한 사실을 밝히는 데까지²⁾ 나아간다.

그럼으로써 마침내 ‘신시고국(神市古國)’³⁾을 세운 환웅의 홍익인간 이념과 재세이화(在世理化)의 통치체계가 신라시조 박혁거세의 혁거세(赫居世) 사상과 광명이세(光明理世)의 통치체계로 지속되면서 변화 발전되고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따라서 환웅의 신시고국은 단군왕검의 조선건국 전사(前史)로서 존재하다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수 천 년 뒤까지 민족사의 정치적 이념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속 시킨 문화적 유전자 구실을 하는 살아 있는 역사라는 사실을 거듭 밝혀나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환웅의 신시고국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아야 한국 민족사와 사상사의 지속과 변화 양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논의는 환웅시대를 주목하면서 단군시대에 머물러 있는 역사인식의 한계를 통시적으로 극복하고 단군이 건국한 왕검조선 이전의 민족 사상과 문화를 다각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2) 이 논의는 「홍산문화 유산으로 읽는 신시고국 제천의식의 전통」이라는 별도의 논문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3) 입재해, 「단군신화로 본 고조선 문화의 기원 재인식」, 『단군학연구』 19, 단군학회, 2008, 340쪽에서 신시를 신시고국으로 일컬어야 하는 까닭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2. 환웅시대의 설정과 신시고국의 재인식

한국사에서 환웅시대는 아예 서술되지 않는다. 환웅시대라는 용어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시’가 국호로 호명될 까닭이 없다. 사료에 환웅의 행적과 신시고국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당시의 문화유적이 흥산문화로 존재하고 있는 데도 환웅의 신시고국은 한국사에서 증발된 상황이다. 시대구분에서 제외되어 있는 까닭이다. 시대구분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온전한 역사가 서술된다. 한국사 시대구분론의 잘못은 다음 네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첫째, 환웅시대라고 하는 것은 인물 중심의 시대 구분이다. 주로 국가 중심의 시대인식 또는 시대구분을 하는 관행 때문에 ‘고조선시대’나 ‘고구려시대’, ‘신라시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로 일컫기 일쑤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사 중심의 시대구분으로 역사를 서술하는 것도 관행이다. 그럼에도 단군을 민족시조로 삼는 까닭에 ‘단군시대’라는 용어는 제법 익숙하게 쓰고 있고 국명 중심의 시대 안에서 세부적인 시대를 다룰 때에도 왕조명이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단군시대’가 사학계의 용어로 자리잡고 있다면, ‘환웅시대’도 같은 맥락에서 시대구분 용어로서 충분히 설득력을 지닌다. 그래도 역사학의 관점에서는 ‘신시시대’로 일컫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하지만, 환웅천왕이 우리민족의 하늘 인식 또는 제천문화 형성에 결정적 구실을 하기 때문에 이 논의의 주제에 맞게 ‘환웅시대’를 표방한다.

둘째,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인명이나 국명이나 하는 시대구분 명칭이나 준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환웅시대’를 민족사의 공간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시대구분의 관행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역사적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어떤 명칭을 쓰더라도 ‘환

웅시대’는 인정될 수 없다. 그런 까닭에 더 근본적인 문제로 규정하는 것이다.

단군이 세운 ‘조선’ 곧 ‘왕검조선’도⁴⁾ 제대로 된 역사로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웅시대’를 사학계에서 시대로 인정할 까닭이 없다. 우리 민족사의 깊이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으려고 단군조선의 역사를 부정해온 식민사학의 잔재이다. 그러므로 식민사학의 틀에서 벗어나 고대사료를 주체적 역량으로 골똘하게 읽고 당대의 고고학 자료와 관련하여 ‘환웅시대’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시대구분 용어나 개념은 특정 역사에서 논리적으로 귀납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서구학계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오던 낡은 시대구분 용어를 그대로 수입해서 우리 역사를 규정하는 까닭에 ‘환웅시대’와 같은 독자적 시대구분 용어가 낯설다. ‘석기’와 ‘청동기’, ‘철기’와 같은 도구의 재료로 시대를 명명하는 서구학계의 시대구분 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고인돌’이나 ‘토기’와 ‘옥기’와 같은 생활세계의 문화유산들은 시대구분의 자리에서 배제되고 있다. 왜 석기시대는 있는데 토기시대는 없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반론을 펼쳐야 한다. 그러므로 서구학계의 상투적인 시대구분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한국사와 한국문화의 전개에 적절한 시대구분 논리를 새롭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료가 사관이고 사관이 사료라’는⁵⁾ 역사인식으로 민족사를

4) 단군이 세운 나라는 ‘고조선’이 아니라 ‘조선’이다. 그런데도 흔히 ‘고조선’이라 일컫는 것은 『삼국유사』의 항목 이름을 ‘고조선’이라 한 것에서 비롯된 오류이다.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위서』에서나 『고기』에서 한결같이 ‘조선’이라 표기했다. 우리 역사상 고조선 시대는 있어도 고조선이라는 국가는 없다.

임재해, 「‘고조선’조와 ‘전조선기’로 본 고조선의 역사적 실체 재인식」, 『고조선단군학』 26, 고조선단군학회, 2012, 277~343쪽에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었다.

읽는 주체적 사관을 수립해야 한국사의 독창적 시대구분론을 펼칠 수 있다. 그러려면 외국이론의 일방적 적용도 극복해야 하지만, 한국사에 대한 기존 학설의 고정관념도 극복해야 한다. 그 동안 민족시조는 단군이고 민족사의 출발이 ‘고조선’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가 일반화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실제 사료와 어긋난 것일 뿐 아니라, 고대사의 상한선을 의도적으로 제약하려는 식민사학의 틀과 교과서적 수준의 고대사 인식에 매몰되어 있는 함정일 따름이다. 따라서 단군을 민족시조로 받드는 문화적 전통이나 민족종교 활동 수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료들을 근거로 기존의 민족시조와 민족국가 설정을 해체하고 고대사 서술체계를 새롭게 구상하는 모험적 시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이론을 끌어들이 우리 문화와 역사를 우격다짐으로 적용하는 낡은 학문의 틀을 깨고 우리 문화와 자료를 그 자체로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발상의 학문을 펼쳐야 한다. 학문도 독창성이 없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서구학문을 받아들여서 반영하는 ‘달빛학문’이 아니라 스스로 독창적 학문의 빛을 발하는 ‘햇빛학문’을 추구해야 한다. 햇빛학문으로서 역사학은 한국사는 물론 세계사, 인류사, 지구사의 고정적인 인식 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역사 해석의 틀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한국의 상고사 해석에서부터 적용하여 강고한 식민사학의 장벽에 균열을 내야 한다. 그것은 곧 한국사 중심의 독창적 사관과 역사이론을 새로 개척해 나가는 일이다. 도전적 역사의식으로 상고사 체계를 다시 수립하지 않으면, 여전히 환웅천왕의 자리를 단군왕검이 대신 차지하게 되는가 하면, 흥익인간 이념 아래 신시

5) 임재해, 「건국본풀이로 본 시조왕의 ‘해’ 상징과 정치적 이상」, 『比較民俗學』 43, 比較民俗學會, 2010, 468쪽.

(神市)를 세우고 주곡(主穀), 주명(主命), 주병(主病) 등 360여 가지 인간사를 ‘재세이화’의 방법으로 통치한 높은 수준의 ‘신시고국’ 역사를 증발시키게 된다. 민족사의 꼭지점인 환웅시대를 인식하지 못하면, 왕검조선 이전부터 존재했던 신시의 역사를 외면한 채, 오히려 환웅을 찾아와서 인간이 되기를 빌었던 곰족을 마치 민족시조인 것처럼 왜곡하는 연구가 버젓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삼국유사』 고조선조에는 단군의 ‘조선’국보다 환웅의 ‘신시’고국의 체제를 더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환웅의 신시고국은 홍익인간의 통치이념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상당히 체계적인 국가로서 3상5부의 정부조직과 통치체제, 통치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환웅시대와 신시고국을 민족사에서 배격하고 곰족이나 단군에서 민족사의 뿌리를 찾으려 들고 있는 것은 식민사학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환웅시대를 단군시대와 대등하게 역사적 시대로 인식하고 그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서술하려면, 환웅시대를 고대사로 인정하지 않거나 시대구분으로 설정하지 않게 된 위의 네 가지 이유를 비판적으로 포착하고 그 요인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첫째 잘못 굳어진 사학계의 경직된 학풍 관행에서 안주하지 말고, 둘째 김부식 이래 조성된 종속적 식민사학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며, 셋째 서구 사학계의 역사이론과 상투적 시대구분의 틀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그리고 넷째 자기 사관을 정립하고 자국사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독창적 역사연구의 역량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우리 눈으로 우리 역사를 제대로 포착하고 우리의 미래 역사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전망적 역사해석을 할 수 있다.

환웅시대의 설정과 그 시대구분 인식이 중요한 것은 고조선 부정론의 식민사학(또는 강단사학)과,⁶⁾ 고조선 긍정에 매몰된 민족사학

(또는 재야사학)이⁷⁾ 지닌 한계를 함께 극복하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하는 시대 개념이기 때문이다. 고조선 부정론의 식민사학은 의도적으로 고조선의 역사적 깊이와 지리적 강역을 축소하려고 여러 모로 애쓴다. 강단사학자들 다수는 고조선의 역사를 서기전 10세기 전후로 크게 단축시키고 고조선의 강역 또한 압록강 이남의 한반도로 크게 축소하는 연구에 진력하고 있다.

이와 맞서는 재야사학계 다수는 단군 시조론과 고조선 최초국가론에 매몰되어 있다. 단군조선의 역사와 그 강역은 확대 해석하되, 단군 이전에 환웅천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고 단군이 ‘조선’을 건국하기 전에 환웅이 흥익인간 이념을 품고 ‘신시’고국을 세워서 360여 가지 일을 다스리며 재세이화(在世理化)했다는⁸⁾ 사실을 주목하지 않는다. 오직 단군왕검과 단군조선을 우리 민족사의 출발점으로 여긴 나머지 환웅의 행적과 흥익인간 이념까지 단군의 것으로 착각하기까지 한다. 그러므로 환웅시대는 단군시대를 상한선으로 하는 역사인식의 장벽을 넘어서는 것이며, 고조선 최초국가론을 해체하고 ‘신시고국’을 최초국가로 소급하는 구실을 한다.

환웅시대 논의는 단군이 건국한 왕검조선 이전 시대를 대상으로 한다. 이 시대의 사료는 『삼국유사』 고조선 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료를 ‘단군신화’라는 이름으로 신화화하여 사료로 인정하지 않거나, 사료로 인정하는 경우도 아주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등장한 단군신화라는

6) 고조선의 역사를 축소시키고 약화시키려는 식민사학 논의는 주로 강단사학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물론 모든 강단사학자가 식민사학에 포섭된 것은 아니다.
 7) 고조선의 역사를 지나치게 확대하고 미화하려는 민족사학 논의는 주로 재야사학자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일부 강단사학자들도 이에 동참하는 경향이 있다.
 8) 『三國遺事』 卷1, 「紀異」, ‘古朝鮮-王儉朝鮮’,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명명을 여전히 답습하는 것은 단군이라는 이름으로 고조선을 가릴 뿐 아니라, 신화라는 개념으로 역사를 부정하는 식민사학의 책동에 포섭되어 있는 셈이다.⁹⁾ 그러므로 본디 사료에 바탕을 둔 학술용어의 정착이 필요하다.

한편 식민사학을 극복하려는 학자들은 ‘고조선’조의 『고기』 내용, 이른바 ‘단군신화’를 온전한 사료로 끌어들이기 위해 ‘신화’라는 말을 대신하여 의도적으로 ‘단군사화’¹⁰⁾ 또는 ‘단군설화’¹¹⁾ 일컬었다. 그러나 이처럼 사료로 인정한 경우에도 환웅을 배제하고 ‘단군’을 내세움으로써 여전히 환웅은 건국시조로서 단군과 같은 역사적 주체이자 시대 개념으로 인정되지 못하게 되었다. ‘고조선’조의 사료를 일컬을 때 ‘단군신화’처럼 단군을 전면에 내세우면 단군을 낳은 부왕 환웅의 존재가 가려지게 된다. 그러면, 민족시조인 환웅의 존재는 물론 민족사의 출발점이자 찬란한 문화를 지닌 ‘신시’고국의 역사까지 증발시키는 결과에 이른다. 그러므로 환웅시대 인식은 민족시조와 민족국가의 출발점을 소급하는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민족사상의 원류인 홍익인간 이념을 제대로 포착할 수 있게 한다.

환웅시대의 사상과 문화가 제대로 밝혀져야 단군시대의 그것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민족 사상과 문화의 형성과 전승의 통시적 양상도 온전하게 포착할 수 있다. 그런데 환웅을 배제함으로써 환웅과 단군의 시조 인식이나, 신시와 조선의 국가 인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홍익인간 이념도 단군 이전에 환웅이 신시에서 펼쳤던 사상인데 마치 단군의 사상이자 왕검조선에서 비롯된 것으로 착각하기 일췌이다.

민족 사상과 문화의 여러 갈래 가운데서 사료에서 내용이 가장 두

9) 임재해, 앞의 글, 286쪽.

10) 윤내현, 『고조선 연구』, 일지사, 1994, 36쪽.

11) 愼鏞廈, 『韓國民族의 形成과 民族社會學』, 지식산업사, 2001, 145쪽.

드러져 있으며 고대사와 민족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대상이 하늘, 곧 천(天)에 대한 인식이다. 고대에는 어느 나라든 하늘을 섬겼으며 하늘을 섬기는 주체가 천자(天子)로서 왕이었다. 하늘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해를 섬기 것으로서 태양숭배 사상과 만난다. 따라서 시조왕은 으레 천자이자 해의 아들로서 태양시조 신화의 주체가 되었다. 그러므로 주권국가의 제왕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제권(天祭勸)을 가졌다.

왕이 천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온전한 주권국가 구실을 할 수 있었다. 고대 왕의 천제권은 중세까지 이어지면서 일정한 문명권을 이루었다. 중세에는 천제권을 지닌 천자국(天子國) 중심으로 일정한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책봉체제를 이루며 같은 문자와 종교를 공유하는 문명권을¹²⁾ 형성하였다. 천자의 천제권에 의한 책봉체제는 고대 천왕의 천신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대의 제천의식은 중세의 문명권 이전에 형성된 천제의 뿌리라 할 수 있다.

중세에는 여러 나라로 구성된 문명권마다 일정한 종교를 중심으로 천자국이나 교황국, 황제국 등이 해당 문명권의 중심국가가 되어 황제나 교황, 천자로서 천제권을 누렸다. 힌두·불교문명권에서는 전륜성왕(轉輪聖王)이라고 하는 차크라바르틴이 천자 구실을 하였으며,¹³⁾ 이슬람문명권에서는 칼리파가 천자로서 여러 나라의 왕 술탄을 책봉했다.¹⁴⁾ 그러므로 중세의 문명권에서 정치적 군주인 왕은 여럿이어도 종교적 천제권을 지닌 천자는 하나였다.

그러나 고대에는 중세의 종교적 문명권 형성 이전이었기 때문에

12) 조동일,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 7, 계명대학교출판부, 2008, ‘제6강 책봉체제의 세계사’ 및 『동아시아문명론』, 지식산업사, 2010, 제3부 ‘3-1. 책봉체제와 중세문명’에서 책봉체제와 관련하여 문명권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13) 조동일, 『동아시아문명론』, 지식산업사, 2010, 211~215쪽 참조.

14) 조동일, 위의 책, 215~223쪽 참조.

민족국가마다 왕이 천제권을 가졌다. 비록 정치적 군주라 하더라도 천제권을 지니지 못한 왕은 상대적으로 그 지위가 독립적이라 할 수 없다. 곰족과 범족이 환웅천왕을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 달라고 빌었던 것도 천제권을 지닌 환웅의 신시고국에 곰족과 범족의 지도자가 찾아와 책봉을 받아서 신시의 천왕국에 귀속되기를 원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쑥과 마늘을 먹고 동굴 속에 100일 동안 칩거생활을 하는 것은 고대 책봉체제의 가장 초기적인 형태로 해석할 만하다.

따라서 환웅시대 사람들의 하늘에 관한 세계관적 인식과 천신을 섬기는 하늘곳의 제의적 전통을 주목하는 것은, 제천행사를 근거로 천제권을 밝히는 주권국가론을 펴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그러한 논의는 곧 고대의 천신신앙 문화와 함께 민족의 천신사상을 포착하는 일이자, 천제권을 지닌 천왕국과 그러한 주권을 지니지 못한 국가 사이의 고대적 책봉체제 관계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그것은 곧 우리 민족의 문화적 뿌리를 찾는 일이자 고대사 인식을 혁신하는 일이며, 민족사상의 내일을 전망하는 일과도 만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환웅시대에는 하늘을 어떻게 인식했는가 하는 문제부터 풀어보기로 한다.

3. 환웅천왕의 존재 위상으로 본 하늘인식

역사는 왕조인식이나 국가인식보다 시대인식에서 출발하는 학문이다. 왕조가 바뀌고 국가가 달라져도 시대가 바뀌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주목할 의미는 그만큼 약화된다. 따라서 왕조와 국가를 읽을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읽는 것이 역사 이해의 핵심이다. 그러면 시대인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시대인식은 왕조와 국가의 개념을 넘어서, 특

정 시기가 역사 발전에 이바지할 만한 통시적 변동의 의미 있는 고비였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일이다. 따라서 특정 시기에 두드러진 문화적 개성이나 사상적 이념, 사회적 생활의 경향을 포착하는 일이 시대인식일 수 있다. 그런데 그 동안 역사 서술을 보면 국가 또는 왕조 중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환웅시대는 특정 왕조와 국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시대 개념이다. 환웅은 마치 건국시조의 영웅적 인물로서 민족사 초기의 특정 왕조처럼 인식되지만, 그 시대를 다각적으로 읽으면 환웅 개인의 영웅성을 넘어서는 시대상황을 역사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시대상황에 대한 성격을 다각적으로 주목하면, 환웅시대는 1)정치적으로 천왕시대이자 2)국가적으로 ‘신시’고국 시대이고, 3) 종교적으로 천신신앙시대이며, 4) 사상적으로 ‘흥익인간’을 추구하던 시대이자, 5) 사회적으로 모듬살이를 이루어 정착생활을 하며 6) 문화적으로 ‘재세이화’의 농경문화를 누리던 시대이다. 따라서 환웅시대를 읽는 역사적 시대인식은 이 여섯 가지 준거로부터 비롯된다. 하늘에 관한 인식도 이와 같은 준거로 포착하는 것이 총체적 이해에 이를 수 있다.

‘고조선’조 사료를 보면, 환인제석, 환웅천왕, 단군왕검 세 인물이 신화적 영웅으로 등장한다. 환인제석은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신격으로서 제석(帝釋)이자 천제(天帝), 또는 상제(上帝)이며,¹⁵⁾ 단군은 지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으로서 살다가 죽어 산신이 된 왕검이자, ‘조선’국을 창건한 건국시조이다. 환웅은 천제 환인과 왕검 단군 사이에서 존재하는 중간자이자 천상세계와 지상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자이다. 구체적으로 하늘에서 지상으로 하강한 천신이자, 천제와 왕검의 위상 중간에 있는 천왕의 신분이며, 하늘과 땅 또는 신과 인간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구실을 한다.

15) 『帝王韻紀』 ‘前朝鮮記’에서는 환인천제를 “上帝桓因”이라 했다.

환웅은 환인의 아들이자 단군의 아버지로서 조손(祖孫) 관계의 계보 형성에서 중핵에 해당된다. 따라서 환웅천왕의 서사는 혈연적으로 ‘3대기(三代記)의 전형’을 이루며 그 하강은 공간적으로 ‘천지인’ 삼재(三才)를 구성하고 철학적으로 ‘인내천(人乃天)’ 사상의 핵심을 이룬다. 그러므로 환웅의 존재와 홍익인간 이념, 천손강림, 신시고국의 수립, 재세이화 등의 행위는 모두 하늘 또는 천신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 속에 있다. 왜냐하면 혈연적으로 천신의 혈통을 이었을 뿐 아니라 공간적으로 하늘에서부터 지상으로 내려오며, 시간적으로 하늘나라가 태초의 시작 지점이기 때문이다.

환웅이 천신의 아들이자 지상에 온 존재이기 때문에 천손강림으로 그 출현을 일컫고 천왕으로 받들어 호명하였다. 자연히 그 이전의 환웅은 환인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살았던 신격으로서 천상세계의 존재였다. 천신인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므로 환웅 또한 천신일 수밖에 없다. 환인이 ‘제석(帝釋)’ 곧 ‘천제(天帝)’였기에¹⁶⁾ 그 아들 환웅 또한 ‘천왕(天王)’이다. 따라서 환인과 환웅은 천신의 계보로서 신격의 동질성을 나타내기 위해 한자 ‘천(天)’을 표방하고, 부자(父子)의 위계로서 상하관계를 나타내기 위해 ‘제(帝)’와 ‘왕(王)’으로 분별했다. 그러한 천신의 정체와 존재를 한자말이 아닌 우리말로 나타낼 때에는

16) 『三國遺事』 ‘古朝鮮’조에는 환인을 협주로 제석(帝釋)이라 이룬다고 밝혀두었다. 따라서 ‘제석’이라는 뜻에 따라 최남선은 환인을 『法華經』에 나오는 석가제환인(釋迦提桓因陀羅)을 줄여서 일컫는 말이라고 했다. 『법화경』의 이 구절은 석가가 곧 천신이자 천제라는 뜻이다.

『帝王韻紀』와 『應制詩集註』 등에는 상제환인(上帝桓因)으로 표기했고 『東國輿地勝覽』과 『海東異蹟』에서는 천신환인(天神桓因)이라고 표기했다. 따라서 제석은 불교 용어이고, 상제는 도교, 천제는 유교 용어로서 서로 같은 뜻을 지녔다. 실제로 ‘제석’은 도리천을 통솔하며 수미산 꼭대기에 거처하는 ‘천제’를 뜻하는 말로 풀이된다.(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上, 민족사, 2005, 89쪽 각주 13 참조) 그러므로 논의의 일관성과 일반화를 위해 제석이라는 말 대신에 일반화 가능한 개념어로서 천제를 쓰기로 한다.

‘환’으로 동질성을 나타내고 ‘인’과 ‘웅’으로서 부자관계를 분별하려고 했다. 따라서 ‘환인’과 ‘환웅’, ‘단군’은 우리말로 일컫는 호명이라면, ‘천제’와 ‘천왕’, ‘왕검’은 한자말로 일컫는 호명이다.

결국 하늘 천(天)의 뜻과, ‘환하다’에서 온 ‘환’은 서로 같은 뜻이다. 소리값 ‘환인’은 하느님, ‘환웅’은 하늘을 나타내는 우리말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하늘은 ‘한울’에서 비롯된 말로서 곧 우주처럼 크고 둥근 하나의 울타리를 뜻한다. 한울의 세계를 다스리는 신이 한울님이자 하느님이며 ‘환님’이자 ‘환인’이다. 환님은 한울을 다스리는 하나의 신이자 한울의 우주를 주재(主宰)하는 큰 신으로서 한님이자 햇님이기도 하다.

환웅은 ‘화농’, ‘하늘’의 소리값을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문제는 ‘환인천제’와 ‘환웅천왕’에서 하늘을 나타내는 공통 표기로서 한자말 ‘천’에 대하여 우리말 ‘환’을 대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하늘은 한울이라는 공간적 인식에서 온 말이지만, 그 본질적 속성을 다르게 나타내는 말이 ‘환’이 아닌가 한다. 환은 ‘환하다’에서 비롯된 말로서¹⁷⁾ 밝다는 뜻을 지녔다. 한자말 천제와 천왕은 모두 하느님으로서 하늘 나라를 다스리는 천신의 개념을 나타내지만, 우리말 ‘환인’과 ‘환웅’은 모두 ‘환하다’, ‘밝다’는 뜻을 지녀서 하늘과 해의 물리적 현상을 나타낸다.

‘환하다’는 스스로 빛을 내거나 받아서 뚜렷하고 밝은 상태를 나타내는 동시에, 시야가 탁 트여서 넓고 시원스러운 전망을 나타내기도 한다. 빛을 중심으로 환인과 환웅의 한울 개념을 인식하면 하늘의 ‘해’와 더 가까운 존재이며, 전망을 중심으로 한울 개념을 인식하면 우주의 무한 공간으로서 ‘하늘’ 자체와 더 가까운 존재이다. 그러므

17) 金敬塚, 『韓國原始宗教史』, 『韓國文化史大系』,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70, 129쪽. 金戊祚, 『韓國神話의 原型』, 正音文化社, 1988, 345쪽에서 참고.

로 환웅시대의 하늘세계는 곧 환하고 밝은 무한대의 공간이며, 하늘의 주체는 스스로 빛을 내는 ‘해’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늘의 천신들은 ‘환인천제’와 ‘환웅천왕’처럼 일관된 논리와 어법으로 하늘의 세계를 나타내는 일정한 체계 구실을 하고 있는데, ‘단군왕검’에 이르면 그러한 체계가 바뀌어진다. 하늘을 나타내는 우리말 ‘환’은 물론 한자말 ‘천’도 사라진다. 환은 ‘단’으로 천은 ‘왕’으로 바뀌었다. 단군은 지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조선’의 건국시조가 되었으므로 당연히 ‘왕’을 표방해야 할 것이다. 천손으로서 신성시되는 존재이긴 하지만 하늘의 신격이 아니라 지상에서 태어난 인격인 까닭에 ‘천제’나 ‘천왕’이 아닌 ‘왕검’ 수준으로 일컬어질 수밖에 없다.

환웅부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우리말 ‘환’도 한자말 ‘단(檀)’으로 바뀌었다. 천손이면서도 신격에서 인격으로 전환된 왕이기 때문에 ‘환’을 표방하지 않고 ‘단’을 표방했다. 천제, 천왕과 다른 신분에 속하는 것이 왕검이듯이 단군의 ‘단’은 환인, 환웅의 ‘환’과 다른 층위에 속하는 것이다. ‘환’은 하늘 또는 해의 기능을 나타내는데, ‘단’은 땅 또는 빛의 기능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단’은 박달나무를 뜻하는 것으로서 태백산 신단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박달나무는 예사나무처럼 땅에 뿌리를 박고 있는 불박이 존재이자, ‘박달’나무의 소리값 ‘밝다’가 상징하는 것처럼 밝은 존재이다.

『삼국유사』에는 단군이 박달나무 ‘檀’이 아니라 제단 ‘壇’으로 기록되었다. 흙으로 쌓은 제단을 뜻하는데, 소리값으로 보면 ‘단’→‘달’→‘땅’을 나타낸다. 아사달이 아침땅인 것처럼 壇君은 땅임금으로서 천군 또는 천왕에 대립되는 인간세상의 임금을 뜻한다. ‘단’의 소리값을 ‘달’ 곧 ‘땅’으로 인식한다면, 檀君이든 壇君이든 한결같이 땅임금 곧 인간세상의 왕을 나타낸다. 단군은 땅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임금이지만 환웅천왕의 아들이므로 햇빛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환인과

환웅이 하늘의 천신이자 해의 기능을 하는 존재라면, 단군은 지상의 왕검으로서 빛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환한 해와 밝은 빛은 같으면서 서로 다르다. 해와 빛은 환하고 밝다는 데서 같지만, 빛은 해의 밝은 기운만을 뜻하는 것으로서 해의 여러 기능 가운데 일부일 따름이다. 따라서 해는 빛을 내는 기능을 하되, 빛은 해의 기능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해는 밝은 기운의 ‘빛’뿐만 아니라 따뜻한 기운의 ‘별’도 발산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해의 ‘빛과 별’은 서로 다른 기능을 발휘한다. 빛이 ‘밝기’를 결정한다면 별은 ‘따뜻하기’를 결정한다.

달은 해와 달리 빛의 기능만 지녔다. 달은 밝은 빛만 있을 뿐 해처럼 열기를 내는 ‘별’이 없다. 왜냐하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반사하기 때문이다. 별도 빛처럼 반사될 수 있고 빛과 함께 가지만, 빛과 달리 반사력이나 전이력이 크게 떨어진다. 따라서 빛은 멀리까지 전달되고 반사 기능도 뛰어나되 별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므로 햇빛은 달에 반사하여 달빛을 이루지만 햇별은 반사력을 잃게 되어 달별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달은 해와 달리 불덩어리가 아닌 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아사달의 ‘달’이 양달과 응달처럼 땅을 일컫는 말인듯이 ‘하늘의 달’도 그렇게 땅덩어리로 인식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하늘의 달을 해와 달리 땅으로 인식했다는 것은 달을 지구와 같은 해의 위성으로 인식했다는 말이다. 지구라는 한자 말 이전에 지구는 땅으로서 달이었다. 왜냐하면 달이나 지구는 자체로 빛을 내지 않는 흙덩이로서 해의 불덩이와 분별되는 까닭이다. 따라서 하늘의 해에 대하여 지구의 땅을 달이라 일컬었다. 남성의 하늘에 대해서 여성을 땅이라 일컫고 남성의 해에 대하여 여성을 달이라 일컫는 것과 같은 구조이다. 따라서 빛과 열을 내는 하늘의 해와 달리 땅과 달은 스스

로 빛과 열을 내지 못하는 흙덩어리라는 점에서 같다. 그러므로 하늘에 달이 두 개일 때는 사람들이 추워서 얼어죽었다고 한다.

빛과 별의 차이는 대단하다. 빛이 있는 곳에 별이 없을 수 있으나 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빛이 있다. 햇별은 빛의 밝기를 먼 햇살의 따듯한 열기를 뜻한다. 밝기와 열기를 함께 아우른 것이 불이다. 따라서 해의 뜨거운 열기를 강조할 때 ‘불별 더위’라는 말을 쓴다. 불에서 열기의 별과 밝기의 빛이 함께 발산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기능적으로 해가 곧 불이고 불이 곧 해이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해와 달은 근본적으로 다른 실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해는 불덩어리인 데 견주어 달은 한갓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은 까닭이다. 결국 불덩어리로 이루어진 해만 빛과 별을 함께 생산하여 만물을 생육시키는 조물주 구실을 하는 것이다.

햇별은 빛과 함께 발산하되, 구체적인 기능은 제각기 밝기와 열기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다. 햇빛은 햇살의 형태로 직사광선을 이루면서 지구에 와 닿아서 빛과 그림자를 형성하고 밤과 낮을 가르는 구실을 한다. 이와 달리 햇별은 햇살과 함께 지구에 오되 직사광선과 달리 열기를 공간적으로 확산하고 시간적으로 지속시킨다. 빛의 생명이 밝음과 어둠으로 즉각적이라면, 별의 생명은 추위와 더위로 지속적이다. 따라서 햇빛이 하루의 밤낮을 가르는 한편에, 햇별은 일년의 사철을 가를 뿐 아니라, 모든 살아 있는 것들을 생육 가능하게 하는 구실을 한다. 해가 이처럼 무한한 에너지 공급원 구실을 발휘하는 것은 꺼지지 않는 거대한 불덩어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햇빛이 있으므로 세상이 있고 햇별이 있으므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해는 삼라만상을 있게 하고 모든 생명을 태어나고 자라게 하는 조물주이자 창조주나 다름없다. 이러한 해의 기능을 고려

할 때, 해는 못존재의 아버지이자 못생명의 어머니이다. 못존재와 못생명의 부모 구실을 하는 해는 하늘나라에 존재한다. 하늘나라는 한울의 세계이며, 해는 한울의 중심이자 제왕이며, 삼라만상의 주재자이자 한울님이다. 따라서 한울님인 해는 하늘에 존재하는 창조주이자 세계의 주재자로서 천신이자 천제이며 하느님인 것이다.¹⁸⁾ 모든 생명에게 생기를 주고 모든 존재에게 존재감을 주는 조물주 하느님의 실체가 해이다. 그러므로 해는 신성한 대상으로 받들어 섬겨야 할 하느님일 뿐 아니라, 태초의 역사를 서술 가능하게 한 시조왕으로서 천신이자 천왕인 것이다.

환웅시대의 환인과 환웅은 우리 민족의 태초를 있게 한 시조왕이다. 두 분 모두 하늘나라의 중심이자 삼라만상의 조물주로서 해를 상징하는 천상적 존재이다. 시조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늘세계처럼 지도자를 구심점으로 모든 백성들이 일정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백성들의 일상적인 생존활동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햇살처럼 눈부신 지도력을 발휘하고, 햇볕처럼 따뜻한 삶의 기운을 모든 존재에게 골고루 미치도록 하는 복지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환웅시대의 하늘은 존재의 빛이자 생명의 기운을 발산하는 해를 정점으로 구성된 한울의 세계로서 이상적인 지상세계의 신성한 보기로 인식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신시고국’ 시조 환웅천왕과 태양시조 사상

환웅이 환인과 더불어 천상세계에서 천신으로 존재하다가 마침내

18) 윤내현, 앞의 책, 702쪽에서 고조선 사람들이 하늘의 상징인 해를 하느님으로 받들었다고 했다.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하강하여 ‘신시’를 수립한다. 환웅이 홍익인간의 이념을 펼치기 위해 지상세계의 천왕이 된 것이다. 중세의 정치체제로 보면 환웅천왕은 환인천제의 아들이자 천자에 해당된다. 이때 신시는 천자가 만든 세계로서 하늘나라처럼 신성한 공간일 뿐 아니라 천왕이 다스리는 영역으로서 정치적으로 ‘신성국가’ 형태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군이 왕검조선을 건국하기 이전에 환웅천왕이 신성국가 ‘신시’를 세웠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신성국가 ‘신시’를 진작 ‘신시고국’이라 일컬었다. 그러므로 환웅과 더불어 ‘신시’ 곧 ‘신시고국’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당시의 ‘하늘’을 인식하는 길이자, 우리 고대사의 출발점을 제대로 포착하는 것이며 민족문화의 뿌리를 캐어 보는 일이다.

신시를 굳이 ‘신시고국’이라고 일컫은 것은 ‘신시’도 하나의 국가 형태를 이룬 정치 조직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신시를 국호로 인식하지 않고 한자말 풀이를 하여 마치 신의 저자거리처럼 인식하기도 하는데, 왕검조선의 우리말 국호 ‘아사달’을 한자말로 ‘조선’이라 표기하고 명명한 것처럼, ‘신시’ 또한 우리말 국호를 한자말로 표기한 것일 따름이다. 따라서 신시를 고유명사로서 조선이나 부여, 고구려, 신라, 백제 등과 같은 국호 개념으로 인식해야 환웅시대의 신시 역사와 문화가 제대로 이해될 수 있다.

왜 조선이나 부여, 고구려, 백제 등은 국호가 되는데, ‘신시’는 국호가 될 수 없는가 반문해야 한다. 왕과 국가는 서로 대응하는 관계이다. 국가 없는 왕이 존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왕이 없는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환웅천왕이 있다는 것은 곧 천왕이 다스리는 정치체제와 강역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일정한 정치체제와 조직이 있다는 것은 곧 그 조직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환웅은 신단수 아래 지역을 신시라 하고 천왕으로서 풍백과 우사, 운

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산과 인간의 수명, 질병, 형벌, 선악들을 주관하는 등 인간 세계의 360여 가지 일을 세상에 머물러서 교화하고 다스렸다.¹⁹⁾ 단군이나 주몽, 박혁거세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행위가 밝혀져 있다. 그러므로 신시를 환웅천왕이 다스린 국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단군과 조선, 해모수와 부여, 주몽과 고구려, 온조와 백제, 박혁거세와 신라가 ‘시조왕’과 ‘국가’로서 짝을 이루듯이 ‘환웅과 신시’도 같은 맥락에서 짝을 이룬다. 단군이 왕으로서 조선을 다스리는 내용보다 오히려 환웅이 왕으로서 신시를 다스린 정치 조직과 체제, 통치 이념, 구체적 활동 등이 더 분명하다. 달리 말하면, 신시고국의 국가체제가 조선국보다 더 체계적이며 더 흔들림이 없었다. 그런 까닭에 다른 지역에 사는 곰족과 범족이 찾아와서 그 문화를 전수받고 동맹관계를 맺으려 했던 것이다. 따라서 환웅이 나라를 다스리는 신성한 왕으로서 천왕이듯이 신시도 신성한 국가로서 그 정체성이 뚜렷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환웅이 환웅천왕으로 호명되는 것처럼 신시 또한 ‘신시고국’으로 명명될 수 있는 필요충분 조건을 갖추었다.

신시고국을 신성국가라고 했다. 왜냐하면 지상의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천상의 왕이 다스리는 천왕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인왕인 단군의 ‘조선국’과, 신왕이자 천왕인 환웅의 ‘신시고국’은 역사적 위상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다. 신성국가는 고대국가 형성 이전 단계의 국가로서 혈연적 민족 집단이나 지리적 강역 중심의 정치체제가 아니라 신성한 지도자 중심으로 형성된 신앙공동체로서 구심점을 지니는 다소 느슨한 정치공동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혈연적

19) 『三國遺事』卷 1, 「紀異」, ‘古朝鮮-王儉朝鮮’, “謂之神市 是謂桓雄天王也 將風伯雨師雲師 而主穀主命主病主刑主善惡 凡主人間三百六十餘事 在世理化.”

집단과 지리적 강역이 있어서 그 집단을 다스리는 지도자가 필요에 따라 배출된 것이 아니라, 탁월한 지도력을 갖춘 신성한 인물이 출현하자 일정한 집단이 그 인물을 해와 같은 지도자로 섬기면서 강한 구심력을 지닌 신앙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이다.

따라서 신시고국을 세운 환웅은 세상을 밝히는 해처럼 환한 존재로 인식되면서 천왕 곧 천신으로 은유되며 추앙되었던 것이다. 환웅천왕은 하느님 환인의 아들로서 천자이자 하늘에서 강림하여 지상을 다스리는 천왕이었다. 혈연적 신통(神統)으로 말하면 ‘천자(天子)’이지만, 정치적 입지로 말하면 ‘천왕(天王)’이고 초월적 존재로 말하면 ‘천신(天神)’이다. 천자이자 천신인 환웅천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신시(神市)’로 호명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천왕이 태백산 신단수를 중심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시고국은 신단수와 같은 지상적 실체를 거점으로 형성된 현실성 있는 국가체계이지만, 하늘에서 지상으로 하강한 천손강림의 천왕이 중심이 되어 형성된 나라인 까닭에 하늘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신성국가이자 천손국가로서 ‘신시’를 이루었던 것이다.

문제는 인왕(人王)의 고대국가 이전에 천왕(天王)의 신성국가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천왕이나 천손의 국가는 실제 사실이 아니라 지도자를 해처럼 ‘환한’ ‘천(天)’의 존재로 인식한 종교적 민족집단이 있었다는 말이다. 정치 지도자 스스로 천왕 또는 천손으로 자처했으며 그를 지도자로 받드는 민족집단 또한 그를 그러한 존재로 인정했던 까닭에 같은 신앙을 공유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탁월한 지도자는 환웅처럼 삼라만상을 관장하는 천손강림의 천왕으로 추앙되었고 혈연적 계보는 환인 곧 하느님의 아들로서 신격화 되었으며, 그 기능은 온 백성들을 ‘환’하고 밝게 이끄는 것을 이상으로 여겼던 셈이다. 따라서 환웅천왕은 신격으로 신앙되는 가운데 그 초월적 역량

은 해의 기능과 같이 못생명들을 낳고 기르는 창조주로 떠받들려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해를 상징하는 환한 존재로서 하느님과 같은 구실을 하였던 신시의 천왕이 바로 환웅이다.

달리 말하면 환웅시대는 곧 천왕시대이다. 환웅천왕이 세우고 다스리는 나라이니 신국(神國)이자 신시국(神市國)으로서 신정국가인 것이다. 신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왕의 신정국가로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국호로서 제격인 것 같다. 신시의 ‘신’은 산신(山神)이나 지신(地神), 해신(海神)이 아니라 천신(天神)으로서 하느님이며, 신시의 ‘시’는 나라 이전의 공동체로서 ‘고을’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말풀이는 환웅본풀이의 맥락에서 벗어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본풀이의 서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환웅의 신시는 ‘신단수’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환웅은 태백산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 아래에 터를 잡고 그 공간을 ‘신시’라 일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시는 곧 신단수 아래에 있는 지리적 영역을 정치적 공간 개념으로 일컫는 명칭이라 할 수 있다.

태백산 정상에 있는 거목을 왜 ‘신단수’라 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신시’의 국호를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다. 신단수는 천신인 환웅이 흥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무리 삼천을 이끌고 하늘에서 하강한²⁰⁾ 공간이다. 따라서 신단수는 신이 강림한 나무, 신 내림 나무, 신이 지핀 나무로서 신수, 신목, 신대나 다름없다. 신목은 죽은 나무도 포함되며 신대는 꼭 나무가 아니라도 가능하므로 살아 있는 나무를 일컬을 때에는 ‘신수(神樹)’가 제격이다. 그런데 왜 ‘신수’라 하지 않고 굳이 ‘신단수’라 일컬었을까. ‘단’이란 말을 넣음으로써 특별한 ‘신수’를 나타내려고 한 까닭이 아닌가 한다.

박달나무 ‘단’은 밝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관련 한자를 가져온

20) 『三國遺事』 卷1, 「紀異」, 「古朝鮮-王儉朝鮮」, “降於太伯山頂 神壇樹下”.

이두식 표기이다. 환인과 환웅의 ‘환(桓)’은 그 뜻과 상관없이 우리말 소리값 ‘환하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이두식 표현이다. 따라서 환웅이 하늘에서 신단수에 내려오는 과정과 상황을 제대로 나타내기 위해 신수에 밝다는 뜻의 ‘단’을 삽입하여 ‘신단수’라 일컫은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므로 신이 내린 나무, 신이 지핀 나무, 신이 깃들어 있는 나무 ‘신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의 해처럼 환한 천신 환웅이 지상에 내려와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나무를 나타내기 위해 ‘신단수’라 일컬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두 표기로 이해하면 신단수는 ‘신 밝은 나무’이다. 그런데 신은 관념적으로 천신인 환웅을 일컫는 것이자 물리적으로는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해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단수는 곧 신 밝은 나무이자 해 밝은 나무이다. 물리적으로 해가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 올 때 해가 제일 먼저 비치는 나무가 해 밝은 나무 곧 신단수이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태백산은 늘 하늘에 닿아 있는 듯한데, 그 산 정상에 우뚝하게 서 있는 거목 신단수는 하늘과 가장 가까울 뿐 아니라, 해가 뜰 때 가장 먼저 햇살이 비치는 대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태백산 정상의 신단수는 하늘과 땅을 잇는 매개 공간이자, 하느님과 인간의 소통 공간으로서 신 내림과 신의 현현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제의 공간이자 신정국가의 정치적 성소라 할 수 있다.

천신이 태백산 신단수에 강림한 사실을 하느님의 구체적 실체로 인식하는 사유의 뿌리는 해의 운동 이치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천신의 강림은 물리적 존재인 해가 아침에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현상에서 비롯된 발상이다. 천왕이자 한울님인 해는 아침에 하늘로 떠오르면서 그 햇살이 지상으로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한다.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곧 아침 햇살이 높은 산의 거목 끝에서부터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세상이 밝아지는 것과 같다. 해를

상징하는 환웅천왕은 곧 신단수의 성소를 중심으로 신시라는 일정한 강역 안에서 더불어 사는 주민들을 어둠의 걱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햇빛처럼 환하고 따뜻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햇살같이 고른 복지 세상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신시는 신단수와 짝을 이루는 국호이자 신정국가의 이름으로서 매우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시고국은 지상으로 강림한 천왕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환웅이 해를 상징하는 지도자이며 신시가 신단수와 연관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신시를 천왕이 다스리는 고국(古國) 정도로 이해하는 데에서 만족할 수 없다. 신시는 천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으면서도 환한 하늘 국가로서 신국(神國)이자, ‘해’를 숭배하는 ‘태양국’이다. 환웅이 해를 상징하는 신격이라면 물리적으로 신단수는 해 밝은 나무이며, 그 아래의 신시는 해 밝은 땅으로서 ‘환한 나라’ 곧 ‘환국’이다. 그러므로 신시는 환국, 한국을 일컫는 가장 초기의 한자말 국호라 할 수 있다.

신시가 한국을 일컫는 한자말 국호라면, 한자로 표기되기 이전의 ‘신시’는 우리말로 무엇이라 일컬었을까. 신은 하느님이고 그 실체는 ‘해’라고 했다.²¹⁾ 신의 우리말이 하느님 곧 해라고 하는 추론은 순전히 하늘에 관한 인식 곧 ‘환인’과 ‘환웅’의 ‘환’과 천제와 천왕의 ‘천’ 개념을 논리적으로 귀납해서 얻어낸 것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른 근거로 같은 해석을 하는 연구가 발표되어 주목된다. 김양동 교수는 한국 고대문화의 원형과 상징을 해석하는 일련의 논의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신’을 ‘햇살’로 풀이하고 있다.

한자 ‘神’자의 고본자(古本字)는 ‘申’자이고 그 뿌리는 ‘丨’자에서 비

21) 임재해, 「‘고조선’조와 ‘전조선기’로 본 고조선의 역사적 실체 재인식」, 『고조선단군학』 26, 고조선단군학회, 2012, 324쪽. “‘신’의 우리말은 ‘하느님’이고 하느님의 실체는 해이다. 따라서 신은 곧 해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신불의 우리말은 ‘해불’이라 읽어야 할 것이다.”

롯되었는데, ‘丨’자는 빛살 또는 햇살을 상형해서 나타낸 글자로 해석한다. 따라서 해의 빛살과 햇살에서 공통되는 음절인 ‘살(솔)’이 ‘神’의 고유어이자 본디 우리말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²²⁾ 이런 논의를 진전시켜 ‘솔’에서 해의 뜻을 찾는 작업을 더 자세하게 했다. 태양의 고유어로 ‘살’, ‘날’, ‘해’, ‘불’ 등이 있으나, ‘살’은 진작 죽은 말이 되어 그 이미지가 잠복되어 있고 ‘불’도 “고어에선 ‘태양을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현대어에선 태양을 바로 지칭하는 말은 아니다.” 하였으며, 현재 쓰이고 있는 말은 ‘해’와 ‘날’만이 남아 있다고²³⁾ 했다.

그러나 해를 일컫는 ‘불’은 아직도 그 자취를 어느 정도 지니고 있다. 해는 실제로 불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서 열기를 발산한다. 따라서 해의 뜨거움이나 더위를 나타낼 때 햇별을 은유하는 말로 ‘불별’ 또는 ‘불별더위’로 일컬어지고 있다. 햇별이 곧 불별으로서 해와 불은 서로 동격이다. 불을 두고서 그 밝기를 ‘불빛’으로 나타내지만 그 뜨겁기를 ‘불별’으로 나타내지 않는다. ‘별’이 따뜻하다든가 뜨겁다고 할 때 그 별은 으레 햇별을 일컫는다. 그러므로 띄약별이든 불별이든 가을별이든 모두 햇별을 한정해서 일컫는 말이므로, 해는 곧 불로 인식되거나 은유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불은 원초적으로 해와 같은 기능을 한다. 불별이 곧 햇별인 것처럼 불이 곧 해이자 해가 곧 불이었다. 해의 밝기와 열기, 그리고 해의 에너지 구실을 불이 발휘하기 때문이다. 해가 뜨는 것은 곧 불을 밝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한자에도 이와 같은 상형문자 ‘불(𤇀)’을 쓰고

22) 김양동, 「한국 고대문화 원형의 상징과 해석 1. ‘神’의 해석」, 『교수신문』 2013년 2월 18일자, 8면 참조.

23) 김양동, 「한국 고대문화 원형의 상징과 해석 2. ‘神’의 순수고유어와 고대 상징의 세계」, 『교수신문』 2013년 3월 4일자, 8면. “𤇀자를 ‘불’이라고 발음하는 것은 태양숭배 사상을 사유의 母型으로 삼은 東夷系 언어의 잔영임이 분명하며, 현재 그 말을 우리 언어에서 계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있다. ‘불’은 日+ 出의 회의자 𠄎로서, 해가 뜨는 새벽을 뜻한다. 중국에서는 불을 ‘火’자로만 쓸 뿐이다. 따라서 해가 뜨는 새벽을 𠄎이라고 쓰고 ‘불’로 소리내는 것은 해를 하느님으로 믿고 숭배하는 환웅시대의 태양시조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²⁴⁾ 그러므로 환웅의 신시는 곧 해가 하늘에서 신단수 아래로 하강한 공간이자, 새벽에 여명과 함께 해가 막 솟아오를 때 햇빛이 가장 먼저 비치는 일출의 공간이다. 일출 공간이 곧 불(𠄎)이다. 그러므로 신시의 본디 우리말은 ‘해불’이라 할 수 있다.

해불은 곧 해의 뜨거움을 나타내는 말이다. 해를 상징하는 환웅이 신단수 밑에 내려 왔으니 신시는 사실상 해의 열기가 가득한 공간일 수 있다. 따라서 해의 불덩어리를 나타내는 우리말 해불이 한자 神市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신시를 신단수와 관련된 지명으로 읽으려면 신시(神市)가 아니라 ‘신불(神市)’로 읽어야 의미가 제대로 살아난다.²⁵⁾ 왜냐하면 슬갑 불(市)은 곧 무성한 초목을 뜻하는 글자이기²⁶⁾ 때문이다. ‘저자 시(市)’와 ‘슬갑 불(市)’은 서로 다른 글자이지만 같은 자로 착각하기 쉬울 만큼 획수나 자획이 거의 같다. 따라서 슬갑 ‘불’로 써도 저자 ‘시’로 읽거나 목판에 새길 수 있다. 『삼국유사』 목판본의 오자 사례들을 보면 충분히 그런 착오가 있을 수 있다.²⁷⁾

왜 신시가 아니라 신불로 읽어야 신수와 연관성을 지니게 되는가 하면, ‘시(市)’는 한갓 저자의 뜻을 지녔지만 ‘불(市)’은 초목이 무성한 숲을 나타

24) 김양동, 「한국 고대문화 원형의 상징과 해석 3. ‘神’의 순수고유어와 고대 상징의 세계(2)」, 『교수신문』 2013년 3월 18일자, 7면.

25) 신종원, 『삼국유사 새로 읽기(1) -기이편』, 일지사, 2004, 56쪽.

26) 이성규, 「문헌에 보이는 한민족문화의 원류」, 『한국사』 1, 국사편찬위원회, 2002, 157~158쪽.

27) 임재해, 앞의 글, 323쪽.

내는 뜻을 지녔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불’은 한자의 뜻으로 불 때 신단수 아래의 울창한 숲을 일컫는 지명 구실을 하기에 충분하다. 신성한 숲 ‘신불’은 곧 헐리우드를 뜻한다. 그러나 『삼국유사』의 한자표기법인 이두 또는 향찰의 기술방법에 따라 불[市]의 뜻을 새기지 않고 소리말로 읽으면 ‘불’은 밝음 또는 뜨거움을 나타낸다. 혼불과 같은 맥락의 불이 바로 ‘신불’이다.²⁸⁾

신단수가 신내린 숲 또는 해 밝은 숲인 것처럼, 신불 또한 이와 같은 뜻을 지닌다. 檀樹가 ‘밝은 숲’을 뜻하는 것처럼, 불[市] 또한 ‘밝은 숲’을 뜻하는 말이다. 市의 소리값은 불빛으로 밝음을 나타내고 그 뜻은 무성한 숲을 나타내는 까닭이다. 따라서 신단수 아래에서 환웅천왕이 다스리는 공간을 같은 뜻의 한자 말로 신시라 일컬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神檀樹는 환웅천왕이 자리잡은 지리적 공간을, 그리고 神市는 환웅천왕이 다스리는 정치적 강역을 나타내는 말이다.

神市는 이두식 표현의 양면적 의미를 지닌다. 신단수처럼 신이 깃들어 있는 숲을 나타내려면 굳이 ‘신불(神市)’이 아니라도 신림(神林)이나 ‘신쭈[神藪]’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도 ‘신불’이라 한 것은 ‘불(市)’의 한자 뜻으로서 무성한 숲을 나타내는 한편, 불의 소리값으로 우리말 ‘불’을 나타내려 한 것이 아닌가 한다.²⁹⁾ 나무나 숲을 나타내는 여러 말 가운데 굳이 ‘불(市)’을 가려서 ‘신불(神市)’이라 한 것은 한자로 표기 이전의 본디 우리말을 살려서 표기하기 위한 의도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神市의 한자 표기는 본디 우리말 ‘해불’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불’ 신시는 해의 뜨거운 열기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지명으로는 그러한 속성을 지닌 공간을 일컫게 된 것이다. ‘해가 처음 뜨는 양지’ 또는 ‘해가 잘 비치는 양지바른 곳’을 일러 ‘해불’이라

28) 임재해, 위와 같은 곳.

29) 임재해, 위와 같은 곳.

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해불’ 신시는 사실상 ‘아사달’과 같은 뜻을 지녔다. 아침 해가 잘 비치는 양지바른 곳을 일러 ‘해불’ 또는 ‘아사달’로 일컬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우리말이 한자로 기록되면서 해불은 ‘神市’로, 아사달은 ‘朝鮮’으로 표기되었던 셈이다. 따라서 환웅의 신시고국이나 단군의 조선국은 모두 해밝은 땅을 일컫는 국호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웅님 환웅은 곧 천왕이자 환한 님으로서 해를 상징한다.³⁰⁾ 환웅 천왕이 하강한 산은 太白山이고 그가 자리잡은 곳은 神檀樹 아래이며 그가 다스린 공간은 神市로서 모두 해가 밝은 공간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하늘에서 해가 가장 먼저 내려와서 양지를 이룬 산이 태백산이고 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깃들어 있는 나무가 신단수이며, 해를 상징하는 환웅천왕이 지상에 머물러 재세이화한 정치적 강역이 神市古國이었던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가 모든 시공간의 출발을 열어가는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관념적으로 해와 같은 구실을 하는 존재로 하느님, 환웅, 천신, 천왕 등을 일컬었던 것이다.

환웅과 신시는 ‘왕’과 ‘국가’로서 서로 짝을 이루는 유기적 존재로서 서로 떼어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정치지도자의 상징으로 여기던 환웅시대의 정치적 강역은 ‘신시’였으며, 이 ‘신시고국’ 시대를 다스리던 정치지도자가 곧 환웅천왕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추론하면, 신시고국 시대의 하늘은 곧 지상세계의 보기가 되는 신성한 세계였으며, 신시고국을 세운 시조 환웅천왕은 하느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온 누리를 밝히는 해와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신시고국의 시조 환웅은 하느님이자 천왕으로서 해를 상징하며 해의 기능을 발휘하는 존재이다. 신시를 굳이 해불이라는 우리말로 해

30) 윤내현, 『고조선 연구』, 일지사, 1994, 701쪽.

석하지 않아도, 신시는 천왕국이자 천신국으로서 하느님 나라 또는 해고을이나 해나라로 존재하였다. 따라서 당시 사람들은 해가 삼라만상의 존재를 비로소 있게 한 조물주라는 사실을 인식한 까닭에, 신시고국을 해 같은 지도자 환웅이 건국한 것으로 믿는 태양시조 사상의 종교국가를 이룩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왕과 나라를 모두 하늘과 해에 은유할 만큼 천상계를 보기로 지상세계를 구성한 까닭에 하늘과 천신을 섬기는 천제문화를 창출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하겠다.

5. 태양숭배의 천신신앙 문화와 홍익인간 이념

태양시조 사상은 세 갈래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삼라만상을 살아 있게 하는 해의 생태학적 이치를 창조주와 같은 존재로 믿어서 해를 민족시조로 인식하는 것이며, 둘은 민족시조 환웅천왕처럼 스스로 천자의식을 지니며 해를 하느님으로 섬기는 것이며, 셋은 하느님으로 상징되는 해의 초월적 기능을 중요한 가치관으로 인식하고 그 뜻을 널리 펼치려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인식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의 해 곧 천신이자 천제인 하느님이 지상세계의 모든 존재를 주관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손의식을 지닌 환웅천왕은 곧 자신에게 지상세계를 다스리게 한 아버지 환인천제를 섬기지 않을 수 없다.

신시고국 사람들은 태양시조 사상에 따라 민족시조 또는 건국시조를 하늘에서 내려온 천왕 또는 천신으로서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해와 같은 존재로 인식했다. 달리 말하면 지상세계 이전에 천상세계가 먼저 있었고, 자기와 세계를 있게 한 초월적 존재가 하느님이자 해라

고 믿었던 까닭에, 하느님을 믿고 섬기는 천신사상과 민족시조로서 환웅천왕과 같은 존재를 설정하는 태양시조 사상을 지녔던 것이다. 환웅은 천왕이면서 환인천제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천자(天子)를 자처하는 천손의식을 지녔다는 말이다. 천자가 있으면 천부(天父)가 있게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환인천제는 곧 환웅천왕의 천부(天父)로서 천자인 환웅천왕의 섬김을 받게 마련이다. 환웅은 천자이기 때문에 환인천제를 섬기는 제천의식을 주관하는 주체가 되었던 것이다.

하늘 또는 하느님을 섬기는 신앙을 흔히 천신신앙이라 한다. 기독교도 하느님을 섬긴다는 점에서 천신신앙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하느님이 창조주이자 조물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조왕 구실을 하고 ‘하느님 아버지’로 호명되는 것처럼, 하느님으로서 해의 창조 기능을 담당한 환인천제 또한 조물주이자 창조주 구실을 하며 환웅천왕의 아버지로 인식되는 존재였다. 교회에서 하느님을 아버지로 호명하는 것은 기독교인들 스스로 하느님의 피조물로서 천손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느님께 제의를 바치고 기도하는 의식이나 천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모두 하느님 신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은 천신신앙의 맥락 안에 놓여 있다. 다만 같은 천신신앙이면서도 세상을 창조한 하느님의 기능에 큰 차이를 보인다.

기독교의 하느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제일 첫날 하느님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넷째 날에 낮을 주관하는 큰 광명과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을 만들어 하늘에 두고 주야로 땅을 비추게 하였다. 결국 해와 달은 넷째 날에 창조한 셈이다. 따라서 하느님은 해와 달과 빛 이전에 하느님이 있었다. 그러나 환인천제는 하느님이자 곧 해였다. 해나 빛을 창조한 하느님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해가 곧 하느님이며 그 아들이 민족시조로 이

땅에 하강하여 해를 상징하는 나라 ‘해불’ 곧 神市를 세웠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환인천제가 ‘해’라면, 지상에 내려온 아들 환웅 천왕은 ‘햇살’이라 할 수 있다.

하늘과 땅은 환인과 환웅, 천제와 천왕으로서 부자관계 속에 있다. 태초의 부자관계는 하늘에서 출생하여 지상으로 강림하고 천신으로서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환웅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신격으로서 천신의 자질을 그대로 지녔다. 하늘 위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와 지상세계를 밝히는 햇살처럼 ‘환한 존재’이다. 따라서 천부 환인이 계신 하늘이자 자신이 나고 자란 하늘을 섬기지 않을 수 없다.

햇살은 해에서 비롯된 존재이다. 해가 없으면 햇살도 없다. 햇살이 자기 존재감과 정체성을 확보하려면 하늘의 해를 섬기게 마련이다. 해의 밝기에 따라 햇살이 결정된다. 햇살의 아버지는 해이다. 햇살이 해를 섬기는 것은 곧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나 다르지 않다. 환인과 환웅이 부자관계를 맺으며 천자인 ‘환웅 햇살’이 천부인 ‘환인 해’를 섬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다음 단계로 등장하는 환웅과 단군의 부자관계는 크게 다르다. 환웅은 하늘에서 태어난 천신이자 천왕으로서 하늘에서 내려온 햇살처럼 온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존재이지만, 단군은 지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인간세계를 밝히는 존재이다. 환웅이 하늘의 해를 상징한다면, 단군은 그 햇살을 누리는 지상의 양지를 상징한다. 환웅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하늘에서 땅까지 온누리를 환하게 밝히는 반면에, 단군은 지상의 일정한 지역에 불박이로 정주하면서 인간세상을 밝힌다. 단군의 정주 지역이 ‘아사달’로서 조선이다. 아사달은 곧 아침 해가 뜨는 양지바른 곳이다. 환웅 햇님이 있으니까 단군의 아사달도 있는 것이다.³¹⁾ 그러므로 단군은 ‘아사달’을 대표하는 왕검

31) 『三國遺事』卷1, 「紀異」, ‘古朝鮮-王儉朝鮮’, “魏書云 乃往二千載有壇君王儉

으로서 아침 해를 숭상하고 해가 뜨는 하늘을 우렁어 섬기지 않을 수 없다.

하늘은 물리적 공간이자 하늘나라를 일컫는 세계관적 공간이다. 세계관적 공간으로서 하늘나라는 천국인데, 주체로 보면 신들이 사는 초월적 세계이자, 통시적으로는 내세이며 공시적으로는 이상세계이다. 지상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있듯이 천상세계를 다스리는 왕도 있다. 하늘(한울)의 왕을 하느님(한울님)으로 일컬었는데, 하느님으로 인식되는 해는 둥근 모양과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에 따라 ‘알’로 일컬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해를 큰 알로 일컬어서 ‘한알님’, ‘하날님’, ‘하나님’으로 일컬을 수 있다.

그렇다면 천신 하나님은 해를 나타내는 말에서 비롯된 말일 수 있다. 따라서 천신을 나타내는 우리말 ‘하나님’은 ‘하나’라는 유일신 개념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한 알’로 존재하는 해의 개념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하나님과 하느님, 한알님과 한울님, 알과 울이 같 된다. 알이 해라면 울은 우주이다. 한울의 신이 한울님(하느님)이자 한알로서 해인 것이다. 지금은 하늘을 하나의 표기로 쓰지만 과거에는 다양한 표기가 있다.

가) 한울과 사이 생길 적에
彌勒님이 誕生한즉,
한울과 사이 서로 부터,
찌러지지 안이하소아³²⁾

나) 우리 인간에서 한 하늘에 달이 둘이 뗏소 한 하늘에 해가 둘이 뗏습니다.³³⁾

立都阿斯達”.

32) 孫晉泰, 『朝鮮神歌遺編』, 郷土文化社, 1930, 김쌍돌 구연, <창세가>.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230쪽에서 재인용.

다) 하늘은 어떤 것이 하늘이나
 청청맑은 청하날이오
 잉은이도 삼하날 지하에도 삼하날 지자도 삼하날
 삼십삼쳐구쳐서른세하날 이것이 하늘이외다
 하늘은 두려운 하늘 땅은 백사지땅³⁴⁾

자료 가)에서는 하늘을 ‘한울’이라 했고 자료 나)에서는 ‘하늘’이라 했다. 모두 ‘한울’을 일컫는 말을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한울은 한울의 ‘한’을 힘주어서 말한 것이라면, 하늘은 한울의 ‘울’을 힘주어서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³⁵⁾ 한울은 소박하게 말하면 하나의 큰 울타리를 말하지만, 하늘의 세계상을 고려하면 우주를 뜻하는 말이다. 우주를 하나의 거대한 울타리로 일컫은 것이 한울, 하늘, 하늘이다. 하늘을 한울, 한울, 하늘로 일컫는 한편, ‘한울’ 또는 ‘하날’로 일컫는 경우도 있다.

자료 다)에서는 하늘을 ‘하날’이라고 했다. 한울과 하늘이 한울에서 비롯되었다면, ‘하날’은 ‘한알’에서 비롯되었다. 한알은 우주적 외연을 나타내는 한울의 우주상과 달리, 우주의 형상을 알의 형태로 나타냈다고 할 수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해를 환한 알이라 하여 ‘한알’이라 일컬었을 수 있다. 해는 환한 알이자 못생명을 생육하게 하는 밝고 뜨거운 불덩어리이자 불알이다. 따라서 하늘과 해는 서로 넘나들며 일컬어졌다. 하늘이 해이고 해가 하늘이었다는 말이다. 해를 뜻하는 한알과 하늘을 뜻하는 한울이 ‘한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한울이 한울, 한알, 한울로 다양하게 일컬어진 것이다.

33) 임석재·장주근, 『관북지방무가』, 문교부, 1966, 강춘옥 구연 ‘생긋’. 김헌선, 위의 책, 257쪽에서 재인용.

34) 赤松至誠·秋葉隆, 『朝鮮巫俗の研究』(上), 朝鮮總督府, 1937, 박봉춘 구연, ‘초감제’. 김헌선, 같은 책, 394쪽에서 재인용.

35) 임재해, 「건국본풀이로 본 시조왕의 ‘해’ 상징과 정치적 이상」, 『比較民俗學』 43, 比較民俗學會, 2010, 476~478쪽.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하늘의 어원이 ‘한불’이라는 것이다. 양주동은 『고가연구(古歌研究)』에서 하늘의 어원을 ‘불’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불은 밝음 곧 광명을 뜻하는 고어이다. ‘불’은 ‘불’로서 ‘밝다’, ‘볶다’의 어원에 해당된다. 양주동은 ‘불’이 변해서 ‘알’이 되었다고 한다.³⁶⁾ 서불에서 서울로 전이된 것처럼 한불에서 한울로 전이되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한불’에서 ‘한울’, ‘한울’, ‘한알’, ‘한울’이라는 말이 파생되었으며, 모든 크게 밝은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늘 또는 해를 일컫는다.

하늘이 밝으려면 해와 같은 불덩어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늘의 밝은 상황을 주목하는 ‘볶’ 곧 해의 사유를 인간 세상에서 나타낼 때 ‘불’이라고 하는 것이다.³⁷⁾ 그러므로 불과 알, 해는 모두 밝고 뜨거운 불덩어리이자 하늘을 은유한다. 알 모양의 불덩어리가 해이고 불덩어리의 알이 불알이자 불씨이며 생명이다. 알은 새의 알이면서 또한 곡식의 낱알이다. 곡식의 낱알은 씨앗으로서 땅에 묻혀서 죽었다가 다시 새싹으로 살아나는 것으로서 날짐승의 알과 같은 재생 기능이 있다.³⁸⁾

실제로 ‘알’은 하늘을 나는 날짐승의 씨앗이자 새끼이다. 알은 날짐승의 아기가자 씨앗이다. 씨와 알에서 모든 생명이 시작된다. 사람의 알은 아이인데, 알에서 비롯된 말이다. 경상도 방언에서 아기를 알라아, 알나아, 알낭아로 일컫는다. 알을 낳은 것이 ‘아기’인 까닭이다. 아기를 방언에서 ‘알나아’라고 하고³⁹⁾ 고어에서 ‘아해’라고 하는

36) 梁柱東, 『古歌研究』, 一潮閣, 1965.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上, 민족사, 2005, 162쪽 참조.

37) 金戊祚, 『韓國神話의 原型』, 正音文化社, 1988, 357쪽. “‘불’이 하늘의 ‘볶’의 사유를 인간의 두뇌에 의해서 산출되고.....”

38) 柳東植,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延世大學校出版部, 1975, 39쪽.

39) 임재해, 위의 글, 478~479쪽 참조. “지금도 그러한 옛말이 살아서 경상도 일대에서는 아기를 ‘알나아’ 또는 ‘얼나아’라고 한다. 알을 낳은 것이 아기가

것도 아기가 ‘알’ 또는 ‘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증거가 해를 상징하며 알의 형태로 태어나는 건국시조들의 난생신화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주몽은 물론,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나고 석탈해나 가야의 시조들도 알에서 태어났다. 정확하게 말하면 알이 바로 건국시조들의 본디 모습이다. 하늘에서 강림한 시조들의 태초 생명은 알이다. 그 알은 예사 알이 아니라 ‘한알’이자 붉은 알이며 빛을 내는 알다. 한울에서 나타난 ‘한 알’ 곧 해를 상징하는 큰 알이 바로 건국시조이다.”⁴⁰⁾ 해모수의 아들 해부루에서부터 ‘해’와 ‘알’, ‘불’이 모두 동등한 존재로 출현한다.

부여의 시조는 모두 해와 불을 상징한다. 부여의 국호도 ‘불’에서 비롯된 것이다.⁴¹⁾ 중국 고문헌에서는 ‘부루(符婁)’, ‘불이(不而)’, ‘비여(肥如)’, ‘불이(不二)’, ‘부역(鳧繹),⁴²⁾ ‘부여(扶黎)’ 등으로 기록하여 ‘불’을 나타내고 있다.⁴³⁾ 하늘에서 해처럼 하강한 해모수는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루(夫妻)라 하고 성을 해씨(解氏)로 삼아⁴⁴⁾ 해부루(解夫妻)라고 하였다. 해는 빛의 밝음과 열기의 뜨거움을 지닌 불덩이이다. 불은 ‘부루’의 차음(借音)이며,⁴⁵⁾ ‘부루’는 ‘불’의 소리값을 나타낸 한자 표기이다.⁴⁶⁾

며, 알을 부화한 것이 날짐승의 새끼이다. (일부 줄임) 실제로 ‘알’과 ‘아’, ‘아이’가 같은 말로 쓰이는 보기도 있다. 알영(闕英)부인을 아리영(娥利英)부인, 아이영(娥伊英)부인, 아영(娥英)부인이라고 일컬어서,¹⁾ ‘알’과 ‘아리’, ‘아이’, ‘아’ 등이 모두 같은 말로 쓰인다. 게다가 알영부인은 닭의 부리를 지니고 계룡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알에서 부화한 상황을 말한다.”

40) 임재해, 앞의 글, 479쪽.

41) 梁柱東, 앞의 책, 392~394쪽.

42) 鳧繹는 중국어 발음으로 ‘부이’로 소리난다.

43) 愼鏞廈, 『古朝鮮 國家形成의 社會史』, 지식산업사, 2010, 267쪽.

44) 『三國遺事』 卷1, 「紀異」, 北夫餘. “自稱名解慕漱 生子名夫妻 以解爲氏焉.”

45) 李鐘益, 「한불思想考」, 『東方思想論叢』, 1975, 443쪽. 윤명철, 『단군신화, 또 다른 해석』, 백산자료원, 2008, 49쪽 참조.

46) 金戊祚, 앞의 책, 346쪽. “解’는 바로 太陽이요, 夫妻는 ‘불’로 암시되는 것

‘해부루’는 해의 알 곧 뜨거운 불덩어리로서 ‘해불’을 한자 소리값으로 적은 것이다. 해부루는 곧 해불 신시와 뜻이 같은 셈이다. 환인과 환웅 부자가 ‘환’으로 해의 밝은 빛을 나타낸 것처럼, 해모수와 해부루 부자도 ‘해’를 통해서 천손의 정체성을 밝은 빛으로 나타냈다.⁴⁷⁾ 해모수의 또다른 아들 주몽도 해를 상징한다. 유화부인이 햇빛을 받아 잉태하였을 뿐 아니라 해처럼 큰 알로 태어난 것이 주몽이다.⁴⁸⁾

금와왕이 이상하게 여겨서 알을 버렸으나 구름 가운데서 햇빛이 알을 비추었다고 한다. 햇빛이 잉태시켜 낳은 것이 닳되들이 큰 알이다. 이때 알은 곧 해라는 것을 말한다. 해모수의 아들 해부루나 주몽은 그 아버지가 천부이자 해를 상징하는 까닭에 모두 천손이자 해를 상징하는 존재이다. ‘고조선’조에서 환인과 환웅으로 불분명하게 일컬어지던 시조왕의 정체가 부여에 오면 ‘해모수’와 ‘해부루’처럼 ‘해’로 한층 구체화되어 일컬어지는 것은 물론, 주몽은 해처럼 큰 알의 형태로 출현하여 시조왕이 곧 ‘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주몽을 일러 동명왕(東明王)이라 일컫는 것이다. 동명왕의 시호도 해의 은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구체성은 신라시조 박혁거세 본풀이에서 한층 구체화된다. 박혁거세는 하늘에서 거대한 ‘붉은 알[紫卵]’의 모습으로 출현했다.⁴⁹⁾

이다.”

47) 임재해, 같은 글, 484쪽. “해모수는 천제로서 ‘해모수’ 자체이며 아들인 해부루는 곧 ‘해불’로서 태양의 뜨거움을 상징한다. 천제 해모수는 천제 환인과 같은 뜻의 이름이다. 환인과 환웅이라는 이름이 해의 밝은 빛을 소리값대로 나타낸 것이라면, 부여의 해모수와 해부루는 해의 이름씨를 그대로 살려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밝다는 뜻의 환인이나 환웅, 단군과 구분하기 위해 해모수 또는 해부루라 했을 뿐 천제나 천왕이라는 햇님 곧 하늘님을 나타내는 뜻은 같다.”

48) 『三國遺事』, 위와 같은 곳. “爲日光所照 引身避之 日影又逐而照之 因而有孕生一卵 大五升許.”

49) 『三國遺事』卷1, 「紀異」, ‘新羅始祖 赫居世王’, “異氣如電光垂地 有一白馬 跪

알에서 나온 아이를 동쪽 샘물(東泉)에 목욕을 시키자 몸에서 광채가 났으며, 새와 짐승들이 춤추고 천지가 진동하며 해와 달이 맑고 밝았다.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혁거세왕(赫居世王)이라고 했다.⁵⁰⁾ 백마가 하늘에서 운반해 온 ‘붉은 알’은 곧 동트는 해의 모양이다. 동쪽 샘에 다 몸을 시키니 아이 몸에서 광채가 났다는 것도 ‘해’ 곧 ‘아해’를 나타낸다. 아해가 빛을 내자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었는데, 이것은 못 생명에 해를 반기는 모습이다. 아이가 해처럼 온 누리를 밝히는 구실을 했다. 그러므로 이름을 혁거세로 일컫은 것이다.

해의 기능을 풀어쓰면 ‘온 세상을 밝히는 것’ 곧 ‘赫居世’이다. 밝다는 것은 곧 붉은 것의 극대화이다. 해가 밝지만 떠오르는 아침 해는 붉다. 하늘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 붉은 해가 점점 더 환해지면서 흰 빛을 내는 밝은 해로 바뀐다. 자란(紫卵)으로 상징되는 붉은 해에서 밝은 해로 성장한 개념이 ‘혁거세’라는 한자 이름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런데 한자 이름 혁거세로서 시조왕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자말이란 당시에는 특수한 계층에게서만 통용되는 문자였던 까닭이다. 따라서 한자 해독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다시 우리말 이름을 함께 지어 ‘불구내왕(弗矩內王)’으로 호명하기도 했다. ‘불구내’는 곧 ‘붉은 해’라는 우리말 소리값을 표기한 것이다.⁵¹⁾ 불구내는 밝은 누리라는 말로 해석되기도 한다. 어느 쪽이든

拜之狀 尋檢之 有一紫卵.”

50) 『三國遺事』, 위와 같은 곳, “其卵得童男 形儀端美 驚異之 浴於東泉 身生光彩 鳥獸率舞 天地振動 日月清明.”

51) 柳東植,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延世大學校出版部, 1975, 51쪽. “광명한 밝王을 뜻하는 ‘弗矩內’(불거안)은 우랄·알타이 족속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Burkhan’이라는 말과 그 語源을 같이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불구내의 뜻풀이는 올바르지만, 불구내를 붉은 해라는 우리말이 아니라 우랄알타이어 ‘부르칸Burkhan’에서 찾는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혁거세는 세상을 밝혀주는 왕이다. 그러므로 “불구내왕은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말”이라고⁵²⁾ 덧붙여 설명해 두었다. 붉은 해가 곧 밝은 해라는 말이다.

고조선조 시조왕들에서 나타난 태양시조 사상이 혁거세왕에서 아주 생생하고 매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왜냐하면 가) ‘붉은 알[紫蘭]’의 형태로, 나) ‘광채가 나는 몸[身生光彩]’으로, 다) ‘해와 달이 밝음[日月清明]’으로, 라) ‘세상을 밝히는 이[赫居世]’라는 한자 이름으로, 마) ‘붉은 해[弗矩內]’라는 우리말 이름으로, 그리고 바) ‘밝게 세상을 다스린다[光明理世]’는 치세의 방법 등으로, 시조왕을 끊임없이 해와 같은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혁거세의 큰 알이 ‘호[瓠]’ 곧 표주박의 모양과 같아서 성을 박씨(朴氏)로 삼았다고 했지만,⁵³⁾ 그것은 후대적 해석이고 사실은 해처럼 밝은 임금 赫居世를 우리말로 나타내기 위해 혁거세 이름 앞에 ‘밝’ 곧 ‘박’을 덧붙인 것이다.

왜냐하면 혁거세의 붉은 알은 한결같이 붉은 해 또는 밝은 해로 은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조왕의 은유는 환웅천왕 이래, 단군, 해모수, 주몽 이후까지 계속되는 태양시조 사상은 물론, 환웅의 ‘흥익인간’ 이념까지 ‘혁거세’ 사상으로 지속되고 있다.⁵⁴⁾ 만일 박씨가 혁거세의 성이라면, 그 아들인 남해차차웅이나 손자인 유리이사금도 환인과 환웅 부자의 ‘환’ 및 해모수와 해부루 부자의 ‘해’처럼, ‘박’이 성으로 이름 앞에 붙여져서 ‘박남해’ 또는 ‘박유리’로 일컬어져야 한다. 그러나 박을 성으로 붙인 명명은 아들 남해왕에서조차

52) 『三國遺事』, 위와 같은 곳, “或作弗矩內王 言光明理世也.”

53) ‘始祖 赫居世居西干’, “辰人謂瓠爲朴 以初大卵如瓠 故以朴爲姓.”박이라 하였는데 처음에 큰 알[大卵(대란)]이 박과 같다 하여 朴(박)으로써 성을 삼았다.

54) 임재해, 「건국본풀이로 본 시조왕의 ‘해’ 상징과 정치적 이상」, 504~505쪽에서 자세하게 다루었다.

쓰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박혁거세의 알은 박[瓢]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해’를 상징하며, 박(밭)이라고 한 것도 밝다는 것을 상징하는 우리말 명명이다. ‘환인+천제’와 ‘환웅+천왕’처럼, 우리말 소리값과 한자말 뜻을 복합적으로 일컫은 명명 방식에 따라 ‘박+혁거세’로 일컫은 것이다.⁵⁵⁾ 밝달임금이 ‘단군’으로 표기되고 일컬어졌듯이, 밝은 임금의 ‘밝’이 ‘박’으로 바뀌어 박혁거세로 표기된 것이다.⁵⁶⁾ 더 추론하면 ‘붉은해’ 또는 ‘밝은해’로 일컬어지던 우리말 이름이 사서에 기록될 때에는 한자 이름 ‘박혁거세’로 표기되었던 셈이다. 따라서 알은 난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천손을 뜻하는 해를 상징하는 것이다.

난생의 주몽과 혁거세, 석탈해 등도 모두 천손으로서 해를 상징하는 태양시조 사상의 맥락 속에 있다. 난생신화의 알은 사실상 알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해이다. 따라서 주몽이나 혁거세는 난생(卵生)이 아니라 일생(日生)이며, 알에서 태어난 시조가 아니라 해에서 태어난 시조이다. 그렇다면 천손강림신화에 견주어 난생신화라 할 것이 아니라 ‘태양시조신화’ 또는 ‘해돋이 신화’라 해야 마땅하다. 천손강림신화와 해돋이신화는 같으면서 다른 신화이다. 그러므로 천손강림신화와 난생신화를 북방계와 남방계 신화로 구분하는 기존 연구는 크게 빗나간 것이다.

태양시조 사상에 뿌리를 둔 시조왕들은 천손이 난생이고 난생이 천손이며, 천손이 해의 은유인 것처럼 난생도 해의 은유인 것이다.

55) 한자말로 혁거세라고 기록했지만 우리말로는 ‘밝은 누리라’고 일컬을 수 있는데, ‘환인+천제’, ‘환웅+천왕’, ‘단군+왕검’처럼, 우리말과 한자어를 결합하여 ‘밝음+혁거세’ 또는 ‘밝+혁’으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 결과적으로 ‘혁거세’를 우리말로 ‘밭’[木]과 ‘붉은해’[弗矩內]로 다양하게 일컬었던 셈이다. 해의 기능과 상징이 다양한 까닭에 그 특징을 제각기 살리면 같은 시조왕을 여러 이름으로 일컬을 있다.

56) 임재해, 같은 글, 479~480쪽, 494~495쪽 참조.

따라서 천손강림형은 북방계 신화이고 난생형은 남방계 신화라고 하는 것은 잘못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오류는 우리 건국시조신화를 그 자체로 해석하고 사료로 분석하여 주체적 역사연구로 끌어안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전과주의적 시각에서 지리적 분포에 따라 외국 신화의 유형에 우리 신화를 무리하게 분할하여 귀속시키는 작업을, 마치 신화 연구이자 해석인 것처럼 착각한 셈이다. 이러한 착각은 독서지식에 매몰되어 반세기 이전의 기존 연구를 이상화한 나머지, 자국 신화자료를 스스로 해석하는 자력적 연구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전과주의 수준의 전래설이나 지리적 분포론에 빠지면, 건국신화는 우리 민족 스스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마치 북방신화와 남방신화가 전래하여 한반도를 분할 점유한 것처럼 이해하는 오류에 이른다.⁵⁷⁾ 이러한 건국신화 전래설은 민족의 자력적 건국 능력 자체를 부정할 뿐 아니라 민족신화의 창조력까지 부정하는 것이며, 민족사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셈이다. 더 거칠게 말하면 민족사 초기의 고대국가들은 모두 외세가 세운 꼭두각시 국가이자 외국인들이 지배한 신탁통치국가라는 말이다.

더 문제는 한민족의 다양한 신화유산을 마치 천손과 난생 두 유형만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천지개벽 신화와 인류시조 신화, 일월조정 신화, 물과 불의 기원신화, 세상차지 신화, 홍수신화 등 다양한 구전신화가 서사무가로 전승되고 있는 것은⁵⁸⁾ 이러한 분류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는다. 제주도 신화만 보더라도 땅에서 솟아오른 삼성시조 신화, 거인여성이 흙으로 제주도를 만들었다

57) 김병모,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1998, 148~149쪽.

58) 임재해, 「韓國 神話의 敍事構造와 世界觀」, 『說話文學研究』(上),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8, 70~110쪽에 이러한 구전신화들을 자세하게 다루었다.

고 하는 선문대할망 신화를 비롯하여 수많은 당신화와 조상신화 및 기타 일반신화들이 있다.⁵⁹⁾ 그러므로 건국신화를 지리적 인접성에 따라 북방신화와 남방신화에 귀속시키는 분포론이나 분류학 수준의 공시적 해석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전개에 따라 세계관적 동질성의 지속과 변화 양상을 포착하는 통시적 해석으로 나아가야 독창적 역사인식이 가능해진다.

6. 건국신화의 지속과 변화를 읽는 통찰력

역사학은 통시적 해석의 학문이다. 그런데 상고시대 연구는 공시적 해석에 치우치기 일쑤이다. 역사적 연구를 지리적 연구로 환원시키는 사학계의 모순을 극복해야 상고사가 통시적 역사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 문화 이동의 전과론적 전래설이나 지리적 분포에 따른 남북신화의 이원적 인식을 극복하려면, 신시고국의 환웅천왕에서부터 비롯된 태양시조 사상이 조선의 단군, 부여의 해모수, 고구려의 주몽, 신라의 혁거세, 가락국의 수로에 이르기까지 이 지속되면서, 천손강림으로부터 난생으로 해의 상징을 더 구체화하는 쪽으로 변화하였다는 사실을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이르면 그 동안 난생신화라는 해석은 터무니없는 편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밝은 빛을 내는 커다란 알은 알이 아니라 해를 나타내는 하나의 은유(metaphor)이다. 은유를 은유로 알지 못하니 난생이라 하는 것이다. 혁거세가 난생이 아닌 것처럼 주몽신화도 난생신화가 아니라 해돋이 신화이다. 해돋이 신화의 주인공 까닭에 주몽을 동명왕(東明王)이라 하고 동맹(東盟)의 제천행사

59) 玄容駿,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集文堂, 1992, 82~114쪽 참조.

를 하는 것이다.

사료의 서술에도 문학적 은유가 적지 않다. 고조선본풀이에도 곰과 범은 모두 종족의 대표를 일컫는 은유이다. 인간이 되기를 빌었다는 사실도 은유이다.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은유를 곧잘 사용한다. ‘아무개는 인간이 됐다’고 할 때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문화적 존재로서 인간을 나타내는 은유이다. 이러한 은유가 뜻하는 실체를 제대로 포착해야 ‘해돋이신화’를 난생신화로 규정하는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다. 어떤 인물이든 하늘에서 강림하거나 알에서 태어날 수 없다. 천손강림이든 난생이든 신화적 은유일 따름이다. 그 은유를 제대로 해석해야 신화의 정체를 제대로 밝힐 수 있다. 그러므로 난생의 은유를 극복하고 해의 은유로 재해석해야 사료로서 건국시조 신화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은유가 다양하게 동원된 기록이라고 하여 문학작품처럼 허구라고 할 수 없다. 역사적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문학적 은유나 철학적 은유를 다양하게 동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국시조 본풀이를 문학적 신화작품이 아니라 역사적 사료라는 시각에서 통시적 고찰을 자력적으로 할 수 있어야 온전한 역사해석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러한 해석 수준을 갖추면, 환웅의 흥익인간 이념이 신시고국 시대에 끝나지 않고 단군조선을 거쳐 신라의 혁거세 사상으로까지 지속되면서 발전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다.

태양시조 사상에 따르면, 나라의 건국지도자는 해처럼 온 누리를 밝혀 못생명을 다 살리는 존재이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환웅의 흥익인간 사상이 곧 온 누리를 환하게 밝히는 박혁거세의 불구내 사상이다.⁶⁰⁾ 따라서 자민족 신화를 다른 민족신화에서 전래되어 형성

60) 임재해, 같은 글, 504쪽.

된 것처럼 특정 요소 중심의 지리적 분포로 해석하거나 공간적 인접성에 따른 전파주의적 영향론에서 벗어나야 민족신화를 그 자체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민족신화를 이루는 근본 사상체계를 귀납적으로 포착하고 주체적 이념과 자력적 세계 인식에 따라, 수천년 동안 지속된 민족신화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면, 지속되면서 변화하는 역동성과 함께 초기에 불분명했던 사실이 후기로 갈수록 한층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 자체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사실이 교차해석을 통한 맥락적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므로 환웅의 홍익인간 이념도 불구내 또는 혁거세의 ‘밝 사상’으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환웅의 홍익인간 이념은 해처럼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혁거세 밝 사상을 고려하면 홍익인간은 곧 세상을 밝게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려면 지도자 스스로 해처럼 밝고 빛나서 못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환웅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인간세상의 360여 가지 일들을 ‘재세이화’했다. 세상에 비친 햇살처럼, 인간세상에 머물러서[在世] 다스리고 교화[理化]한 것이다. 환웅이 머무른 구체적 공간이 신단수 아래며, 재세이화로 다스린 강역이 신시고국이었다. 그러므로 곰족과 범족이 신단수 아래로 환웅을 찾아와서 인간이 되고자 빌었던 것이다.

환웅과 해모수는 천손으로서 온 누리를 밝게 다스리는 해처럼 인간세상을 다스렸기에 모두 ‘천왕’으로 일컬었지만, 해모수는 환웅처럼 재세이화하지 않았다. “아침이면 일을 보고 저녁이면 하늘로 올라갔다. 사람들은 해모수를 일러 천왕랑(天王郎)이라 했다”⁶¹⁾ 해모수의 행동양식은 곧 아침저녁 해의 출몰과정과 같다. 세상사람들이 일컬은 천왕랑이란 이름도 해를 뜻하는 칭호이다. 환웅천왕의 신시고국

61) 李奎報, 『東國李相國集』 卷3, 東明王篇.

시대에는 흥익인간 이념과 정착생활을 특히 중요한 가치로 여겼는데, 해모수의 부여시대에는 해처럼 인간세상을 밝게 다스리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긴 셈이다.

박혁거세의 신라시대에는 ‘재세이화’가 아니라 ‘광명이세(光明理世)’를 강조했다. 赫居世는 곧 弗矩內로서 붉고 밝은 해를 상징하는 존재인 까닭에 광명처럼 밝게 세상을 다스렸던 것이다. 해모수가 해의 일몰 기능을 근거로 낮 동안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쉬었다면, 혁거세는 해의 광명 기능을 근거로 세상을 공명정대하게 다스렸던 셈이다. 이 시기는 환웅시대와 달리 이미 오랜 정착생활을 해왔다. 따라서 정착생활은 새로운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에 ‘재세’를 문제삼을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이 되는 해의 ‘밝 사상’을 강조한 까닭에 ‘재세이화’에서 ‘광명이세’로 진화한 것이다.

재세이화는 초기 농경문화에서 비롯된 가치관이다. 환웅천왕이 인간세상을 다스리는 360여 가지 일 가운데 가장 으뜸으로 여긴 것이 ‘주곡(主穀)’으로서, 농경활동을 통한 곡식의 안정적 공급이다. 이것을 관장하는 신이 풍백과 우사, 운사로서 모두 날씨를 주관하는 신격이다. 농경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순풍조의 날씨이다. 따라서 풍백과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인간세상을 재세이화했다고 하는 것이다. 농경활동의 기본은 정착생활을 근거로 한다. 그러므로 이 시기는 수렵채취 단계를 막 벗어나 농경사회에 진입한 단계로서 ‘在世’ 곧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여 정착생활을 하는 것이 새로운 가치였던 것이다.

흥익인간 이념으로 종래의 수렵생활을 새롭게 혁신시켜 새로운 농경 체제의 나라를 세운 것이 환웅의 신시고국이다. 유목민족은 상대적으로 국가와 같은 일정한 강역 체제가 절실하지 않다. 따라서 유목 국가에는 여러 소수민족 중심의 공동체가 족장 체제로 유지되는 특

성을 지낸다. 자연히 종족의 정체성이 국가 정체성 못지않게 중요한 까닭에 국가체제는 상대적으로 후기에 형성된다. 그러나 농경민은 정착생활을 하는 까닭에 상대적으로 국가체제가 더 절실하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를 결정하는 해의 공전주기와 하늘의 기후 문제가 농경문화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이다. 그러므로 신시고국처럼 농경생활을 하며 정착문화를 누리는 가운데 홍익인간의 꿈을 실현하려면 하늘에 제의를 받치지 않을 수 없다.

유목생활은 더 좋은 풀밭으로 찾아다니며 이동생활을 하는 까닭에 일기가 고르지 않아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땅에 씨를 뿌리고 농작물을 기르는 정착생활에서는 하늘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농경민은 지금 여기가 가문다고 해서 비가 오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다. 정착생활을 하는 까닭에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없고 농작물을 두고 이동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을 관장하는 천신에게 제의를 바쳐서 우순풍조를 빌고 농사가 잘 되기를 기원하지 않을 수 없다.

7. 제천의식의 천제권과 책봉체제의 재인식

제천행사의 주체는 천제권을 가진 환웅천왕이었다. 환웅의 천신족은 홍익인간 이념 아래 농경생활을 하며 정착문화를 누리는 농경민이자, 천신신앙의 제의로 농공시필기에 국중대회 형식의 제천행사를 하던 천신족이었다. 유목생활이나 수렵채취생활을 하던 범족이나 곰족에 비하여 환웅의 천신족은 사상적, 종교적, 문화적, 경제적 생활이 앞선 선진문화국이었다. 따라서 이웃의 곰족이나 범족은 그러한 천신족의 선진문화와 사회체제, 생활방식을 동경할 수밖에 없었다. 곰

족과 범족 지도자가 환웅을 찾아와서 인간이 되게 해 달라고⁶²⁾ 빌었던 것은 곧 천왕의 신시체제 속에 자민족 집단을 귀속시켜 달라고 요청한 것이나 다름없다. 달리 말하면 천신족 문화권에 편입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길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곰족과 범족 모두 신시고국의 천신신앙 문화권을 동경했지만, 곰족만 농경문화 체제에 잘 적응하여 쑥과 마늘을 먹는 채식생활과 동굴 속에 머무는 정착생활을 잘 견뎌내고 환웅의 천신족 문화권에 순조롭게 편입되었다. 그러나 유목생활에 익숙한 범족은 그러한 농경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 천신족의 농경문화에 편입되는 것을 포기하고 일탈했다. 중세의 국제관계인 책봉체제를 근거로 말하면, 환웅천왕이 곰족은 자문화권으로 귀속시켰으나 범족은 귀속시키지 않은 셈이다. 그 귀속 여부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으로 이해된다. 문화적 차이가 커서 범족 스스로 일탈했는데, 그 귀속 여부는 상당히 자유로웠던 셈이다.

곰족처럼 천신족의 선진문화에 자직 복속하는 종족들이 늘어나고 확대되면서 신시고국 체제가 발전하여 고대국가 형태로 자리잡은 것이 단군조선이다. 단군조선이 건국되고 고대국가 체제가 확립되자, 원근의 다른 종족들도 자진해서 단군조선의 문화권에 속속 편입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천신신앙을 받아들이며 농경문화를 공유하되 정치적으로 독립된 종족집단들이 단군의 조선의 거수국(渠帥國)⁶³⁾ 또는 후국제도(侯國制度)로⁶⁴⁾ 발전한다.

62) 곰이나 범이 인간으로 변신하기를 빌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축자적 해석이다. 사료의 기록으로 보면, 곰족과 범족이 신시의 환웅천왕을 찾아와서 천신족의 농경문화와 같은 선진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부탁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농경문화가 당시로서는 가장 선진적인 문화이자 인간다운 문화라고 여긴 까닭이다.

63) 윤내현, 『고조선 연구』, 일지사, 1994, 60~63쪽, 439~441쪽.

64) 慎鏞廈, 『古朝鮮 國家形成의 社會史』, 지식산업사, 2010, 246~258쪽.

단군조선과 거수국들(또는 후국들)은 직할국(直轄國)과 봉국(封國)의 관계로서⁶⁵⁾ 연맹국가를 이루었다. 이러한 연맹체제가 중세형 책봉체제 이전의 거수국체제이다. 고대형 책봉체제인 거수국체제가 지속되다가 단군조선이 해체되면서 열국으로 나뉘어져서 저마다 독립국가를 형성한다.⁶⁶⁾ 독립국가인 부여, 고구려, 신라, 가야 등의 시조 왕은 모두 천손으로서 천제권을 가진 나라였다. 천손의 천제권 중심으로 형성된 직할국과 봉국 관계는 고대에서부터 중세까지 다양한 형태의 연맹체제를 이루면서 지속되다가, 중세에는 중국의 천자 중심으로 책봉체제가 확립된다. 근대로 오면서 중세의 책봉체제가 해체되었으나 그러한 국제관계는 현재도 일정한 질서의 문명권으로 지속되고 있다.

현대 문명권은 중세의 책봉체제처럼 위계질서가 분명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중심국가와 주변국가의 역할 관계는 지속되고 있다. 아직 종교가 구심점이 된 문명권이 대세이지만,⁶⁷⁾ 언어와 문화의 동질성, 또는 정치체제가 구심점이 되기도 한다. 국제관계를 이루는 변수들이 다양한 까닭에 서로 다른 문명권에 이중 소속도 이루어진다. 실제로 한국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문명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미국 중심의 정치체제 속에 귀속되고 있다.

한국은 중세의 문명권 전통에 따라 유교문화권으로서 중국과 책봉체제를 이루고 있었으나, 현재의 정치체제와 세계질서에 따라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현대 국제질서는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군사적 동맹관계와 경제적 교역과 협력 등은 사실상 중세 책봉

65) 윤내현, 앞의 책, 60쪽 참조.

66) 윤내현, 『한국열국사연구』, 지식산업사, 1998, 31~270쪽에서 이 과정을 자세히 다루었다.

67) 새뮤얼 헌팅턴 지음 이희재 옮김, 『문명의 충돌』, 김영사, 1997에서는 현대의 세계문명권을 주로 종교 중심으로 나누었다.

체제의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대에는 신앙과 종교에 따라 천제권이 국제질서의 중심을 이루었다면, 근대에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국제질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탈근대 세계체제는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문화창조력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정한 문화주의 시대가 열리면 문화 중심의 문명권이 새로 형성될 것이다.

※주제어 : 환웅시대, 신시고국, 태양시조사상, 천제권, 천신신앙, 재세이화, 광명이세

※투고일자 : 11. 20 심사일자 : 12. 9 게재확정일자 : 12. 11

〈참고문헌〉

- 『東國輿地勝覽』
- 『東國李相國集』
- 『法華經』
- 『三國遺事』
- 『應制詩集註』
- 『帝王韻紀』
- 『海東異蹟』

金敬琢, 「韓國原始宗教史」, 『韓國文化史大系』,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70.

金戊祚, 『韓國神話의 原型』, 正音文化社, 1988.

김병모, 『금관의 비밀』, 푸른역사, 1998.

김양동, 「한국 고대문화 원형의 상징과 해석 1. ‘神’의 해석」, 『교수신문』 2013년 2월 18일자.

김양동, 「한국 고대문화 원형의 상징과 해석 2. ‘神’의 순수고유어와 고대 상징의 세계」, 『교수신문』 2013년 3월 4일자.

김양동, 「한국 고대문화 원형의 상징과 해석 3. ‘神’의 순수고유어와 고대 상징의 세계(2)」, 『교수신문』 2013년 3월 18일자.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새뮤얼 헌팅턴 지음 이희재 옮김, 『문명의 충돌』, 김영사, 1997.

孫晉泰, 『朝鮮神歌遺編』, 鄉土文化社, 1930,

愼鏞廈, 『韓國民族의 形成과 民族社會學』, 지식산업사, 2001.

愼鏞廈, 『古朝鮮 國家形成의 社會史』, 지식산업사, 2010.

신종원, 『삼국유사 새로 읽기(1) -기이편』, 일지사, 2004.

梁柱東, 『古歌研究』, 一潮閣, 1965.

柳東植, 『韓國巫敎의 歷史와 構造』, 延世大學校出版部, 1975.

윤내현, 『고조선 연구』, 일지사, 1994,

윤내현, 『한국열국사연구』, 지식산업사, 1998.

윤명철, 『단군신화, 또다른 해석』, 백산자료원, 2008.

- 愼鏞廈, 『古朝鮮 國家形成의 社會史』, 2010.
-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 上, 민족사, 2005,
- 이성규, 「문헌에 보이는 한민족문화의 원류」, 『한국사』 1, 국사편찬위원회, 2002.
- 李鐘益, 「한복思想考」, 『東方思想論叢』, 1975.
- 임석재·장주근, 『관북지방무가』, 문교부, 1966,
- 임재해, 「韓國 神話의 敍事構造와 世界觀」, 『說話文學研究』(上), 단국대학교 출판부, 1998.
- 임재해, 「단군신화로 본 고조선 문화의 기원 재인식」, 『단군학연구』 19, 단군학회, 2008.
- 임재해, 「건국본풀이로 본 시조왕의 ‘해’ 상징과 정치적 이상」, 『比較民俗學』 43, 比較民俗學會, 2010.
- 임재해, 「‘고조선’조와 ‘전조선기’로 본 고조선의 역사적 실체 재인식」, 『고조선단군학』 26, 고조선단군학회, 2012.
- 赤松至誠·秋葉隆, 『朝鮮巫俗の研究』(上), 朝鮮總督府, 1937,
- 조동일, 『세계·지방화시대의 한국학』 7, 계명대학교출판부, 2008,
- 조동일, 『동아시아문명론』, 지식산업사, 2010,
- 玄容駿, 『巫俗神話와 文獻神話』, 集文堂, 1992.

<Abstract>

Sun Founder Idea of Hwanung's Age and The Tradition of Belief in the Heavenly Gods of 'Government and Education of the World'

Lim, Jae-Hae

The reasons why Hwanung's Age has been excluded from the periodization in the Korean history are because of both the lack of the understanding of Korean ancient history and the lack of our independent periodization in history due to the non-subjective and the uncritical dependence on the Western periodization in history. Heavenly king without his nation is contradictory in that both king and nation are two components of a pair. Hwanung heavenly king and Sinsigoguk also existed together. Thus, Hwanung's Sinsigoguk is historical substance that has its records in various documents and whose existence is being supported by archeological excavated relics.

As a heaven's offspring and a heavenly king, Hwanung who governed Sinsigoguk proclaimed the idea of Benefit-All-Mankind. Not only did Hwanung heavenly king have a right to manage rituals for heavenly Gods, but also he opened advanced culture based on agricultural and settlement life through 'Government and Education of the World.' Thus, at that time, Sinsigoguk was the most advanced country. For that reason, both a bear

tribe and a tiger tribe came to Hwanung to with their longing for Sinsigoguk's advanced agricultural culture.

Sinsigoguk's agricultural traditions of ideas of Sun Founder, Benefit-All-Mankind, and Government and Education of the World were continued to Tangun of Chusun, Haemosu of Buyeo, Jumong of Koguryo and Park Heokgeose of Silla. Nation founder myth developed from the mythologies of heavenly offsprings' descent to the earth , such as Hwanung and Haemosu, to the mythologies of offspring-by-eggs, such as Jumong and Par Heokgeose. In the beginning, agricultural settlement life was the most important value. As agricultural culture continued, the value for leaders who should govern the world brightly became more important than the value of agricultural settlement life. It was because good weather and the change in seasons, which determine agricultural life, are determined by Sun's movement. Thus, the more agricultural culture is reinforced, the more Sun founder idea deeply reinforced. For that reason, it is natural the central value of Sinsigoguk, which has relatively short agricultural history is different from that of Silla, which has relatively long agricultural history.

The Sun founder idea and heavenly Gods idea of Hwanung's Sinsigoguk continued to next generation. However, the founding kings transformed from the forms of heavenly offspring' descent into the forms of offspring-by-eggs. The ideas of Benefit-All-Mankind and Government and Education of the World developed into Heokgeose idea of 'Government the world with Enlightenment.' In this sense, the propagation perspective, in which one distinguish nation-founding mythology into that of heavenly offspring and that of offspring-by-eggs and allocate them to the northern province mythology and the southern province mythology respectively, should be

overcome.

If one interprets nation founding mythology according to Sun founder idea chronically, the expression of offspring-by-eggs is problematic from its name. It is because big and bright eggs, which appear in mythologies of Jumong and Heokgeose, should be interpreted as metaphors of sun. As Hwanung and Haemosu are figured as heavenly offspring in their heavenly offspring descent mythologies, the eggs of Jumong or Heokgeose are metaphors of sun. Thus, in order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interpretive errors, the mythology of the offspring-by-eggs should be called the mythology of 'sun-rising.' Therefore, I argue that idea of Benefit-All-Mankind and the idea of Government and Education of the World historically continued with into the idea of Heokgeose and the idea of Government the World with Enlightenment with developments in their form

※Key words : Hwanung's age, Sinsigoguk, Sun founder idea, Right to manage rituals for heavenly Gods, Heavenly Gods belief, Government and Education of the World, and Government the world with Enlightenment